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 미 '반도체 패권' 2028년 완성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지난 25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산자이 메로트라 마이크로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반도체 웨이퍼를 전달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로에 6억4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K반도체 골든타임 4년 남았다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반도체 제조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4년간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반도체법을 발표한 지 약 2년 만이다. 3나노미터(nm·1nm=10억 분의 1m) 이하 초미세 공정 경쟁과 메모리 시장의 지각변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산업 그랜드플랜'을 보다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40년 만에 첨단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

**미 칩스법 2년, 반도체 지각변동**  
인텔·삼성·TSMC·SK 공장 집결지, 4년내 2나노·HBM까지 양산 설계~제조 전체 칩 생태계 장악 “K반도체, 초격차 새 전략 필요”  
25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4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125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과 아이다호에 최첨단 메모리 제조 기지를 건설한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스마트폰·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도 머지않아 곧 쏟아질 전망이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지난 18일 “3나노

공정도 버거웠던 미국이 이제는 (더 첨단인) 2나노 공정의 경쟁자가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3나노 공정의 최첨단 칩은 전 세계에 단 2곳, 한국·대만에서만 양산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말 1.8나노(18A)급 공정의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인텔을 시작으로 삼성전자·TSMC가 모두 2027년까지 2나노 칩을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국 정부는 “삼성을 제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2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인텔에 가장 많은 보조금(195억 달러, 약 26조원)을 지원하며 키우고 있다. **이희권 기자 >> 14면 'K반도체' 로 이어집니다**

## “북한 인권은 전세계적 문제”

### SPECIAL INTERVIEW

**미국 '북 인권전문가' 스칼라튜**  
“북한이 주민 착취해 생산한 무기 하마스·헤즈볼라·러시아로 가”

“북한 인권은 이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54·사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은 22일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국민을 착취해 생산한 무기와 탄약이 이란을 통해 하마스·헤즈볼라에, 또 러시아에 들어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핵·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사이에는 너무나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며 “김정은은 세계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국가 진영 사이의 무질서 속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납북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학했고 미국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북한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이란을 통해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헤즈볼라(레바논 무장단체)·후티 반군(예멘의 친이란 반군)에 전달하며,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무기와 탄약은 북한이 자국민을 착취해 생산한 결과물이다.”

“최근 공개된 HRNC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일본인 납북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은 13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피랍돼 일본으로 돌아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납북자는 적어도 17명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망 경우도 믿기 어렵다. 대부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나?”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 4면 '북한 인권' 으로 이어집니다



## 윤·이 오늘 '3년 협치' 건 첫 만남

매듭이 너무 꼬였을 땐 끊고 다시 묶는 게 나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종종 지도자들이 가위질로 돌파구를 찾았다. 1987년 6월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만났다. 당시 김 총재는 회담 결렬을 선언했으나 3달 후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이 나왔다. 2000년 6월 24일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 의약분업으로 촉발한 의료대란의 출구를 열었다. 후대가 의미 있게 평가하는 영수

의제·시간 제한 없는 '열린 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담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한 정치 실종의 세대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난다. 두 사람의

첫 양자회담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담 이후 6년 만이다.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회담은 양측의 참모 3명씩이 배석하는 '4+4' 형식이다. 모두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간다.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오현석·현일훈·심새롬·성지원 기자 >> 2면 '영수회담' 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제법  
순금 여기 팔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용산 "경제·의료공백 최우선" 민주당 "25만원 지원금도 논의"

▶ 1면 '영수회담'에서 이어집니다

의제도, 시간도 제약 없는 '열린 회담'이라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가능성이 될 거라는 전망은 많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비례정당 포함)을 거머쥐며,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만남 자체는 성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한 차례씩 양보하면서 극적 요소도 갖췄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 "만나자"며 물꼬를 댔고, 이 대표도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후 실무진 사이에서 의제를 놓고 일주일간 헝거루기만 반복하자 이번엔 이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만나자"고 했고, 대통령실이 곧장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시간·장소가 일사천리로 정해졌다. 외형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측이 일진일퇴한 셈으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회담에 응한다는 점에서 서로 마이너스가 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정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만큼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만남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회담 성사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민생 이슈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실질적인 회담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도 "민생 골든타임이 시급해 더는 아까운 시간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온도 차가 크다. 대통령실은 회담 성격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고위관계자)라고 규정했다. 고환을 등에 따른 경제 해법과 의료공백 장기화 같은 현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구체적인 공약과 연금 개혁 같은 거시 과제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확

인받고 싶은 마음도 강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민심은 경제를 살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실무회담에서 얘기를 나눴으니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민생과 연계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이라는 대통령실과 "영수회담에서 만나서 손잡고 약속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민주당의 입장이 갈린다.

특히 양측 지지층이 민감해 할 이슈는 난제다. 야권이 요구해 온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범·양곡관리법이 의제로 오를 경우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

냥한다는 점에서 차담 분위기를 급격히 얼어붙게 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만 싸우고 민생을 살피 달라'는 것인데,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성 이슈를 잔뜩 테이블에 올리는 건 민심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에선 "모두발언 내용은 미리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가렸지만,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총선 민심을 다 전달하고 올 수밖에 없는 만큼, 채 상병 특검법도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해야 한다"(전명계 중진)는 의견이 많다.

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을 경우의 성과물 내지 증거물이 될 공동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각자가 따로 발표하는 형식이라도 최소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자'는 정도의 선언

적 문구 정도엔 합의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절한 수준의 합의문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의제 채택을 못했으니 (발표문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합의문은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신 민주당이 바라는 건 양자회담의 정례화다. 전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회담의 성과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겠지만, 최소한 '정례화하자'는 합의만 해도 커다란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스타일 상 여당을 패싱하고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건 부당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오현석·현일훈·심새롬·성지원 기자

## Fed 금리 인하 내년까지 밀리나, FT "전세계 중앙은행 계산 복잡"

미국보다 너무 일찍 금리 내리면 통화약세 우려, 각자도생 쉽잖아

미국의 물가가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당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Fed의 물가와의 싸움이 계속

되면서 여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각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장에선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밀리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물가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다. 1분기(1~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전 분기 대비·연율) 3.4%로 전 분기(1.8%)보다 크게 확대됐다. 3월 PCE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도 2.8%를 기록하며 예상치

(2.7%)를 웃돌았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Fed의 인하 시점은 9월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이 더딜 경우 12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투자자들은 6차례 인하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단 한 차례 인하를 기대하거나 전혀 인하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여타 중앙은행의 피벗을 당당히 미루게 하는 요

소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강달러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세를 자극한다. 글로벌 금융그룹 ING의 제임스 나이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 세계 차원의 문제라 여타 중앙은행도 이 문제를 가법게 볼 수 없다"며 "달러 강세는 다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향후 인

하 속도와 폭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파비오 파네타 ECB 정책위원 겸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Fed의 긴축정책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10~11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연말에 이어 미국이 피벗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효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30일(화)	87~65	31일(금)	83~65
1일(수)	79~58	4일(토)	79~66
2일(목)	77~59	5일(일)	80~58

4월 29일(월) 88~64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곽태우 변호사

##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 ‘1천억불 전쟁 지원금’ 알고보니 ‘워싱턴 지역 경제 보조금’

### 80%가 미국 영토 내에서 미군이 지출

연방의회가 오랜 논란 끝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을 돕기 위해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경보수파들은 연방정부가 35조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1천억 달러를 전쟁원조금으로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 보면 해외 전쟁원조금이 아니라 미국 내 경기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원조 상대국은 그다지 도움을 받을 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 직속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해외 원조금의 2/3



는 미국 기업 등을 통한 지출이었다. 해외원조법률에 의해 거의 모든 원조물자는 미국 내의 기업에서 구매해 지원해야 한다. 심지어 원조물자 수송도 미국 선박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스라엘 군사원조 중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군사원조도 미군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훈련서비스 또한 미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원조가 아니라 미국 내 사기업 매출과 군대 등 공공서비스 영역 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집행 예정된 952억 5천만 달러 중 80%는 미국 군수업체가 생산한 무기 혹은 미군이 기존에 비축해둔 재고 무기 물자다. 낡은 재고물자를 원조물자에 포함시켜 지출하고 신무기를 다시 비축할 목적인 셈이다.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면서 군수산업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된다.

국방예산 중 정부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워싱턴 지역 경제가 이 정부용역을 기대고 있어 해외 원조물자 법안을 버지니아의 내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39개주에 소재한 기업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계약을 맺었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군의 국방용역업체 중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곳도 있

며, 이러한 용역 지출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통과된 예산 중 200억달러 정도는 인도주의적 목적 혹은 경제지원 명목으로 지출되는데, 이 또한 미국 내 기업 혹은 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200억달러 중 80억달러는 우크라이나에 집행되는데 대부분 음식과 국제 재난보조 일반 물품, 난민 구호 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이다. 전쟁원조금이 우크라이나 연금 재정을 돕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안에는 아예 연금지원을 위한 직접 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원조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원조이며 2026년 1월 1일까지 상황이 유예됐을 뿐이다.

김육재 기자

## 간호학과 졸업 학위 2만달러에 팔다 적발

### MD연방지방검찰청

메릴랜드연방지방검찰청이 돈을 받고 가짜 간호학과 학위를 팔아온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 기록에 의하면 용의자 에이키 아지그버넨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메릴랜드의 간호대학 입학 준비 학원과 플로리다의 간호대학인 제이 칼리지를 운영하며 허위 간호학 학위와 정규간호사(RN)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 서류를 판매하고

160만달러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용의자는 가짜 학위와 서류 건당 1만 5천달러~2만2천달러, 온라인 필수이수 학점 서류에 5천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칼리지 등은 2021년 갑자기 폐교돼 메릴랜드 수강생 등 수백여명이 학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이 칼리지는 플로리다 주정부로부터 원대 대면 수업 과정으로 허가된 대학이지만, 2020년 펜데믹을 이유로 원

격수업을 임시 허가받은 후 메릴랜드 등에서 학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정부는 메릴랜드의 간호사 자격증 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못한 타주 대학의 학위 소지자는 시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연방지방검찰청은 용의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60만달러 이상의 몰수형도 추진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와별도로 가짜 학위와 서류를 통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어 좋았어요”

### 함께센터 시민권 클리닉 상황

아시아인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주최한 시민권클리닉이 지난 27일(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애난데일 워싱턴새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시민권 클리닉은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지난 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시민권 신청서 비용을 725불에서 760불로 인상하고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또는 부분 면제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바뀐 시점에 개최돼 소득에 따라 50% 신청비용이 할인되면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새롭게 바뀐 할인 혜택 가이드 라인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어 좋았다”면서 “1년전 함께센터 시민권 클리닉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분이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무척 보람있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움을 받은 한 참석자는 “개인 정보 상담을 이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담할수 있어서 시민권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미국인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걸쳐 귀화할 자격이 있는 인구 860만 명 중 3명 중 2명 이상(71%)이 수수료 할인(\$380) 또는 수수료 전액 면제(\$0)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전 수수료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귀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귀화 자격 대상자는 무려 약 180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 ‘찬양공감, 거룩한 꿈을 전승하라’

### 북미주 KCBMC DC대회 기념 찬양예배 오는 5월5일 개최

북미주 한국기독교실업인회(이하 KCBMC)의 제27차 대회가 오는 6월27일 워싱턴에서 개막 예정인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찬양예배가 오는 5월5일(일) 오후 5시30분 페어팩스 소재 파운데이션 커피 로스터(9650 Main St. #46, Fairfax, VA)에서 열린다.

KCBMC 동부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찬양예배에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역 이야기: 거룩한 꿈을 전승하라’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JC회계법인 대표 지호준 CBMC 대학장이 강사로 나서며, 성보영 목사와 Deep&Wide 파운데이션이 찬양을 담당한다.

문의: 240-281-7949(강고는 KCBMC 워싱턴대회 준비위원장)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 뉴욕 한인재단 760만불 모금, 활동 전국 확대

## 창립 22년 '한인커뮤니티재단'

모금액 30% 이상 타주에 지원 정치인에 정책 기초 활용 기대

“한인사회 발전에 모두가 힘을 보탬 때입니다. K-기빙(giving)으로 함께해주세요.”

뉴욕과 뉴저지에 기반한 한인 단체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이하 KACF)’이 올해 총 760만 달러를 모금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본지를 방문한 윤경복 KACF 회장은 매킨지스카트재단으로부터 500만 달러, 한인사회로부터 260만 달러를 약속받아 총 76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 보기도 문 초대형 모금이다.

매킨지스카트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자 총 377억



(왼쪽부터)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의 모니카 이홍보담당, 윤경복 회장, 브래넨 강 부회장.

달러를 보유한 전세계 여성 3위 부호. 최근 그는 큰 액수를 사회 단체들에 기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KACF는 동시에 지난 17일 뉴욕에서 열린 연례 갈라 모임에서 총 260만 달러를 모금했다. 2002년에 설립돼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KACF는 그동안 무려 400여 개 프로젝트와 단체들에 총 모

금액 1400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설립 첫해 6만 달러 모금으로 시작했다.

모금된 돈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단체 운영기금으로 지원됐다. 이를 위해 KACF는 매년 전국에서 자금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다.

웰슬리대를 거쳐 존스홉킨스에서 개발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윤 회장은 월드뱅크 TV 프로듀서와 뉴욕 폭스채널5에서 최초의 한인 방송기자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윤 회장은 “1세대들이 은퇴한 뒤 2세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한인사회를 지키고 풍성하게 해야한다는 공감대 KACF를 만드는 바탕이 됐다”며 “세대간 다리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한인사회를 더 풍요롭게 가꿔가도록 돕고 거기에 필요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세대 중에도 한인사회를 친정으로 생각하고 돕고 싶은 열정

은 있지만 어떻게 될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소위 ‘K-기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KACF는 올해부터 가주에도 혜택을 확대했다. 남가주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한인청소년회관(KYCC), 소망소사이터티를 포함해 여섯 단체가 혜택을 받았다. 브래넨 강 KACF 부회장은 “뉴욕 뉴저지가 아닌 타주로 모금액 30% 이상이 지원됐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도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비영리 단체 봉사를 하다보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KACF는 ‘능력 배양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을 통해 이제 시작하거나 역량을 확대하려는 단체들에 교육 콘텐츠 지원도 하고 있다.

모니카이 KACF 홍보담당은 “막상

새로운 단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막막하기 쉬운데 조직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며 “남가주 소망소사이터티는 버지니아의 유사 신생 단체와 교류와 지원을 나누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KACF는 전국 한인사회 시니어들의 실상을 파악한 연구 결실도 내놓았다. 윤 회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을 5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당 데이터는 특히 정치인들에게 향후 정책 마련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KACF는 LA 한인사회에 정식 인사와 교류를 위해 기부자 모임(Giving Summit)과 갈라 모임을 9월 초 LA에서 열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과 기부금 관련 문의는 재단 사이트(Kacfny.org)를 방문하면 찾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 상원의원 도전 앤디 김에 “당선 가장 유력”

### NY타임즈 보도

뉴욕타임스(NYT)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 당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앤디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 기질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27일 ‘아무도 앤디 김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김은 로버트 매넨데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 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면서 “누구에게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게 기존 선거 관례였는데, 이런 기득권을 허파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다.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매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과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앤디 김 의원

[AP 연합뉴스]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연방 하원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달 후보직에서 사퇴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뛰어난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다.

뉴저지주에선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도 공화당에 내놓지 않아 왔다.

매넨데스 의원이 여전히 무소속 후보로 출마 의사를 접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시점에서 김 의원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NYT는 전했다.

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에서 3선에 성공했고, 지역구 재편으로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바뀌었음에도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 도

전장을 내밀었다.

출마 과정에서 지역 민주당 지도부에 전화 한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 후보들을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지역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표용지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일렬로 모아 놓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김 의원과 맞붙은 두 차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캠프를 지휘했던 크리스 러셀 공화당 선거전략가는 “그는 마치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켈트와 같다”며 “공격적이지 않고 선의가 있고 착해 보이지만, 무대 뒤의 그는 동물적 감각을 지닌 정치인이다. 매우 기민하고 계산적이다”라고 평가했다.

## 한인 제작 LAT 영상보도 웨비상 수상

한인이 촬영과 제작을 맡은 영상저널리즘 작품이 IT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웨비상’을 수상했다.

LA타임즈는 지난 23일 열린 제28일 웨비상 시상식에서 한인이 참여한 자사의 영상저널리즘 시리즈 ‘위기의 콜로라도 강(Colorado River in Crisis)’이 지속가능&환경 부문(the category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에서 수상했다고 24일 전했다.

웨비상은 디지털 문화와 과학을 위한 국제아카데미가 주관한다. 영상, 영화, 패션, 금융, 음악, 뉴스 등 27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위기의 콜로라도 강은 영상저널리즘으로 록키마운틴부터 멕시코까지 흐르는 콜로라도강의 현재 모습을 담았다. 해당 시리즈는 콜로라도 강 수원이 시작되는 록키마운틴 스노우팩(snowpack) 측정 현장,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목초지 목장, 해를 거듭할수록 매달라가는 강줄기 등 기후변화



현장 모습을 전한다. 특히 이 시리즈는 6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콜로라도 강이 처한 위기상황을 진중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저널리즘 완성도가 높은 이 시리즈는 LA타임즈 비디오 저널리스트인 앨버트 브레이브 타이거 이(사진)씨가 촬영과 제작을 맡았다.

이씨는 동료인 물리 피스케와 이안 제임스 취재기자와 함께 영상저널리즘 작품을 완성했다.

LA 출신인 이씨는 LA타임즈에서 영상저널리즘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에미상 뉴스다큐멘터리 부문, RFK 저널리즘상, 전미사진기자협회도 저널리즘상, 콜롬비아대대트상 등을 수상했다.

김형제 기자

▶1면 ‘북한 인권’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의 정치범 구금시설 현황은.

“우리는 27개 구금시설 위치를 확인했다. 외진 산악 지역, 북-중 국경 근처, 해안가 등에 전략적으로 배치돼 있다. 시설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우리는 위성사진과 증언을 토대로 ‘진실의 퍼즐’을 맞춰 가는데, 코로나19 기간에 정확한 정보 확

인 및 목격자 확보가 어려웠다.” -코로나19의 북한 인권 영향은.

“기혼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 큰 타격을 줬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길거리에서 파는 게 불가능해졌고 끼니 해결이 힘들어졌다. 정치범 수용소나 구금시설에 갇힌 여성에 대한 고문, 강간, 강제 낙태, 성적 학대가 심각하다.”

위성사진=김형구 특파원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안비

####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원  
한의원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한국 제조업 대미 투자 1.8배 ↑, 동부로 집중

## 한국 대한상의 보고서

대미 제조업 투자가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집중됨에 따라 동부에 항만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 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투자는 2019년 158억 달러에서 2023년 277억 달러로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자와 완제품·기자재 물류를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동부 지역 투자 비중이 2014년 55.6%에서 2023년 82.7%로 늘어나는 등 동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분야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SK와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도 미국 동남부 '오토 앨리'(남부 플로리다에서 중북부 미시간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동차 생산 거점들의 밀집 지역) 지역에 공장 설립을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부항만 정체가 심화하고 제조시설 등이 미국 동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으로 재편·분산되면서 과거 30년간 지속된 아시아-미국 구간의 서부항만을 통한 물류패턴이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LA·롱비치, 시애틀·타코마 등 주요 서부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1.8%로, 뉴욕·뉴저지, 서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입지 현황.

대한상의 제공

배너, 휴스턴 등 주요 동남부항만 증가율(3.4%~7.6%)과 비교해서 크게 낮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

물류공급망센터장은 "미국 서부항만은 여전히 아시아-중남미발 수출물량을 처리하는 주요 관문이지만, 한국발

미국 수출물류의 흐름이 기존 태평양을 거쳐 주로 미국 서부를 통해 트럭이나 철도로 움직이던 것에서 미국 동부를 통한 해상운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터미널, 창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니즈(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공급망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북미지역 전략거점에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 가상자산 "대박 꿈꾸다 폭박" 중장년층 투자주의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정보기술(IT)에 취약한 한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 가상자산 업체 VMS USA(Vehicle Mining System, 이하 VMS·대표 앤디 박) 전직 이사 4명 등 투자자 7명은 해당 업체가 불법 단계 펀치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VMS 박 대표는 투자자가 자발적 서명을 했다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각종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심도 커진 모습이다. 투자 설명회 주최 측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 코인 상장 및 투자, 고배당(연 50~150%) 투자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문선영 재정전문가는 "가상자산 발행 또는 채굴 관련 투자회사는 '상장'이라는 가능성을 과장되게 설명해 투자자를 유혹하곤 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는 '완벽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문제는 가상자산 특성상 해당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종류가 우후죽순 늘어나 투자 업체 신뢰도와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을 때도 많다. 이정원 재정보험 전문가는 "시니어가 위험 부담이 큰 곳에 투자해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투자보다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생길 때는 코인베이스 등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라이프스스로템 정찬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투자 시기는 높은 배당률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계약 합법성 여부를 떠나 투자자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 BBQ 치킨도 최저시급 올린다

"규정에 해당 안돼"서 입장 바뀌  
가맹점에 '인상 시행' 공문 발송



# "불행하게도, 캐나다·칠레·싱가포르 출신이 아니라 일이 더 어렵게 됐네요."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 후 뉴욕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A씨. STEM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첨 기회가 주어졌지만, 2년 연속 탈락했다. 마지막 주첨에서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예술인 비자(O비자)를 알아보려 찾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같은 말을 들었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의 필요성에 뼈저리게 공감하게 됐다.

# 맨해튼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인 한인 B씨는 최근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 어렵게 회계법인에 입사해 H-1B 스폰서십을 받았지만 최근 주첨에서 떨어져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B씨는 "1년에 한 번밖에 주첨 기회가 없어서 매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비늘구멍 뚫기와 다른없는 주첨 확률에 유능한 한인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심화하는 H-1B 주첨 경쟁률을 대학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직장생활 중이라고 입을 모으며 E-4비자를 향한 절실함을 피력했다.

컬럼비아대 졸업 후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C씨는 "H-1B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회사를 겨우 찾아 올해 처음 주첨에 참여했으나, 매년 낮아지는 주첨 확률 속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며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친구들도 비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 계획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생활을 마쳤지만 취업비자가 없어 인터뷰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C씨는 "졸업을 앞두고 잡 오퍼를 받아 풀타임으로 고용됐지만, 첫 출근 한 달 전 회사 사정으로 비자 지원이 어렵다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인터뷰 연락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회사에 지원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취득 해놓은 상태라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뷰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해고 문제에서도 취업비자가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는다. C씨는 "회사 입장에서 취업비자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 연봉 협상,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직할 때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비자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상업용자·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8823; FL 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 일본인 90% “女일왕 찬성”

### 일왕 즉위 5주년 여론조사



나루히토 일왕 부부 [AP 연합뉴스]

왕위 계승권이 남성에게만 있는 일본에서 국민 90%가 여성 일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루히토 일왕 즉위 5주년을 앞두고 3~4월 일본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 9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성 일왕을 찬성하는 이유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50%가 ‘일왕 역할에 남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왕위 계승 안정성에 대해서는 72%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젊은 남성 왕족이 허사히도뿐이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일왕 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일왕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이며, 2순위는 후미히토 왕세제 아들인 히사히토다.

나루히토 일왕은 슬하에 아들 없이 아이코 공주만 뒀고, 후미히토 왕세제는 자녀 3명 중 막내만 아들

이다.

일본 ‘황실전법’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의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왕족 여성이 왕족 이외의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식이 왕위를 잇는 이른바 ‘여계 일왕’에 대해서도 응답자 84%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왕제에 대해서는 88%가 ‘있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왕실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7%로 2020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해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2019년 5월 1일 즉위했다.

# “트럼프재판, 여론에 영향 없어”

### “바이든·트럼프 사실상 동률”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학음 돈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으나 지지율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이 나왔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학음 의혹 재판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 28일 이같이 보도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2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평균 2%포인트 뒤졌으나 그 격차가 줄면서 사실상 동률이 됐다. 실제 퀴니피악대 조사(18~22일)에서는 46%로 동률이었다.

또 모닝컨설트(19~21일 1%포인트 우위), 마리스트 칼리지(16~28일 3%포인트 우위) 등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18~23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오차범위(±3.4%포인트)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43%)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 조사와 비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률이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45%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이메일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차례 형사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현재 ‘성추문 입학음 돈’ 의혹에 대한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타블로이드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코로부터 트럼프 전 대

통령의 2016년 대선 출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막으려 했으며 이른바 ‘캐치 앤 킬’(catch and kill) 기사의 판권을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그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유도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에서 “마녀 사냥”, “범죄 몰아가기”라고 반발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CNN의 이날 여론조사에서는 33%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됐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반동이 없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4개의 형사사건 중 3가지 사건의 경우 혐의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다”면서 “만약 형사재판으로 여론조사에서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

# 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무슬림이 많은 중동 국가 이라크의 소셜미디어 스타 구프란 스와디(사진)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자택 밖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CNN 방송이 현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27일 CNN에 따르면 공격 당시 상황은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으며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다.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탄 한 괴한이 스와디에게 총을 쏘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한 바그다드 경찰 소식통은 CNN에 해당 영상은 진짜라고 확인했다. 이라크 내무부 장관은 사건 당일 “소셜미디어에서 알려진 한 여성이 괴한에게 살해된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움 파드라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스와디는 틱톡에서 유명한 인물로, 주로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했다.

과거 이라크 사법부는 이들 영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라크 사법부는 당시 그가 “공중 예

절과 도덕에 위배되게 음란하고 외설적인 언어가 담긴 영상을 생산하고 게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라크에서는 이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인물이 다수 공격당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37만명의 팔로워가 있는 누르 알사파르가 바그다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는 패션,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영상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영상도 자주 올렸다.

스와디가 총격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일부는 총격범을 칭찬하기도 했다.

# 대학 반전시위에 민주당 내홍...백악관 “평화적 시위는 존중”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미국 내 대학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여권의 주요 상원의원들이 28일 이 시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화당이 반(反)유대주의를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백악관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존 페더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이날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지만, 하마스를 위해 소형 텐트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페더먼 상원의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당내 친팔레스타인 목소리에는 선을 그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시위는 반유대주의적이며 비양심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 시위의 진양자인 컬럼비아대학의 네마트 샤피크 총장에게 “일을 (제대로) 하거나 관두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



뉴욕대 재학생들이 22일 스티븐경연대학원 교정에서 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는 가자지구 휴전 및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추세다. 컬럼비아대 재학생 100여 명에 이어 예일대생 50여 명이 잇따라 체포됐지만 반유대 시위는 전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전날 미국공영라디오 NPR에 출연, “페더먼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시위하는 압도적 다수는 우파 극단주의적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기계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인구의 80%를 이주시켰으며 이는 ‘인종 청소’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크리스 퍼피 상원의원(코네티컷)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캠퍼스 내 (시위) 학생의 95%는 이

라면서 “우리는 그들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시위대의 반유대주의의 구호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학들이 시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온건 성향의 미치 매키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대학 총장들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반유대주의는 맞서면서 상황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공화당 강경파는 대학 총장의 사퇴 및 주 방위군 투입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제27차 북미주 KCBMC DC 대회 기념 찬양예배

# 일터비전 찬양공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역 이야기  
거룩한 꿈을 전승하라



2024년 5월 5일(주일) 5:30PM  
FOUNDATION COFFEE ROASTER

(9650 Main St #46, Fairfax, VA 22031)



강사: 지호준 대표 Ph.D, CPA  
JC 회계법인 대표, CBMC 대학장



찬양: 성보영 목사 & DEEP&WIDE FOUNDATION



KCBMC 동부 연합회 주관

문의 및 안내 북미주 KCBMC 워싱턴대회 준비위원장 강고은 240-281-7949

# “1년 만에 한인 대형교회 150여 개 사라진 꼴”

## 개신교 교세 약화 현상

미국 기독교의 교세가 예전같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단마다 갖고 있던 건물도 매각하고 있다. 이는 교세 위축에 따른 위기를 반영한다. 기독교의 교세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돼왔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등 기독교 전반에 걸친 이슈가 분명하다. 건물 매각 이면에는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의 현실이 담겨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세 감소의 이유 등 교계 현상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남침례교단(이하 SBC)은 미국내 최대 개신교단이다. 남동부를 일컫는 ‘바이블 벨트’를 기반으로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로부터 바이블벨트의 표심을 의식해 눈치를 볼 정도였다. 그 중심에 SBC가 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는 남침례교단 산하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 자료를 인용, 지난 2022년 SBC가 무려 1253개의 교회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교인수 감소에 따른 폐쇄가 주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SBC에서는 이 기간 동안 46만 명 이상의 교인이 감소했다. 단일연도로 보면 10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수치다.

미주 지역 한인 대형교회들의 경우 교인 수는 대략 3000명 수준이다. SBC의 교인 수 감소와 비교해보면 1년 만에 150여 개의 한인 대형교회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과 같다.

SBC의 교세는 미국 기독교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 교단의 현재(2022년 기준) 교인 수는 1322만 명이다. 이 교단은 2020년(1408만 명), 2021년(1368만 명) 등 교인 수가 계속 감소 중이다.

이번 보고서가 나온 기준으로 보면 SBC의 교인 수는 16년 연속 줄고 있다. SBC는 지난 2006년 교인 수가 무려 1630만 명이었던 교세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16년간 308만 명이 줄



구수정교회는 남가주 지역의 랜드마크로 불릴 만큼 유명한 개신교회였다. 현금 급감 등으로 지난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 교회를 가톨릭의 ‘그리스도 대성당(Christ Cathedral)’이 2012년에 매입했다. 관광객들이 교회 건물을 구경하고 있다.

남침례교단 지난해 46만 명 감소  
“10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해”  
개척보다 문 닫는 교회 많아져  
PCUSA 등 교단 건물 매각 검토

어든 셈이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스콧 매코널 디렉터는 “교회가 폐쇄되는 수가 개척 교회 수를 앞서고 있을 정도”라며 “특히 과거에 비해 적은 숫자의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장로 교단인 미국장로교(이하 PCUSA)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교단은 19세기 때 한국에 기독교 선교사를 다수 파송했다. 한국의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된 교단이기도 하다.

PCUSA의 경우 지난 2022년에 100개 이상의 교회(약 5만3000명)가 줄었다. 현재 이 교단의

교인 수는 약 114만 명이다. 이 교단 역시 2020년(130만 명), 2021년(124만 명) 등 교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심지어 PCUSA는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캔터키주 루이빌 지역에 있는 교단 총회 본부 매각을 검토중이다.

이 교단 관계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사태 등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해 본부 건물 매각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PCUSA는 지난 2012년 동성애자 결혼 허용 등 교단 헌법을 바꾸면서 급격히 교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가주 지역 PCUSA 소속의 박모 목사는 “대부분 팬데믹 사태를 교인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지만 교세 감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던 일”이라며 “특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PCUSA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등으로 인한 반발 여론이 거세졌고 이러한 점은 교세 감소를 가속화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건물 매각은 PCUSA만의 일이 아니다.

연합그리스도의교회(이하 UCC) 역시 10년 사이(2012~2022) 29만 명에 이르는 교인이 교단을 떠났다.

UCC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총회 본부 건물을 매각했다. 당시 UCC측은 “건물 매각으로 인해 연간 수십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팬데믹 영향을 받긴 했지만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북미개혁교단(CRC)도 지난해 9월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이 교단은 “총회 본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교단 입장에서 부담이 됐다”며 “65년간 교단 본부로 사용해왔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교계의 상황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례로 한국 내 최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통합)의 통계를 살펴봤다. 통합 측에 따르면 현재 교인수는 230만2682명이다. 이는 지난 2015년(278만9102명)과 비교하면 17% 가량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교세 감소는 기독교 전반에 걸친 문제다. 젊은 층이 교회를 외면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독교의 상황 역시 교세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독교의 교세가 감소하는 데는 탈종교 현상도 한 몫하고 있다. 종교사회학계에서는 탈종교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이라는 용어로 규정한다. 영적인 개념에 관심은 분명 있지만 제도권 종교에 의미미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트포드신학교 스콧 섬마 교수(종교사회학)는 “SBNR를 추구하는 부류는 주로 밀레니얼 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 태두리 안에 갇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며 “반면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매우 상당히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이로 인한 탈종교 현상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영지

## 종교와 트렌드

### 영화 ‘둔’ 과 종교적 단상

최근 영화 ‘둔(Dune) 2’가 관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필자도 관람을 하였다.

예전에 본 1편을 유튜브로 복습하면서 큰 즐거움을 머리에 넣고 보았다. 영화 ‘둔(Dune)’은 프랭크 허버트가 1965년에 발표한 소설을 최근에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종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만91년 미래 우주에서 황제의 계략으로 인해 멸문한 아트레이더스 가문 후계자 폴이 제국의 식민지인 ‘아라키스’ 행성에서 메시아로 거듭나며 원주민 프레멘 반군과 힘을 합쳐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몇 가지 기독교에서 모티브로 했을만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후계자 폴이 아라키스 프레

멘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에 대한 프레멘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마치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논쟁과도 비슷한 듯하다.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폴의 무심한 행동하나 하나에도 ‘As written(경전에 써 있는 대로)’라며 폴이 메시아임을 확신해 가지만 다른 부류는 폴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폴은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예지력을 통해서 자신이 멸문한 가문과 프레멘족의 희망임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메시아 같은 리더가 되기로 한다.

폴을 메시아로서 가문의 재건과 프레멘인들의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들을 후원하고 먼 발치에서 후원했다면, 폴의 엄마, 제시카는 아들을 어떻게든 리더로 만들려고 하는 극성 엄마로 나온다.

제시카는 우주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이자 초능력자 집단인 베네게세리트 멤버이다.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구원자를 만드는 교배 계획을 세우며 자신들의 교리를 퍼뜨려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가 구원자임을 믿도록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제시카는 프레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고 여론을 몰아가고 아들에게도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라고 설득한다.

작가는 종교와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허구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특별히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한국인들에게 잘 통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과 사고 없이 믿는 종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교조적(어떤 원리나 이론, 사상 등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여겨 덮어놓고 그대로 지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선거철 되면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여 하나님에 보낸 메시아로 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또 영화에서 메시아인지 테스트하는 것으로 폴이 파란 생명수를 먹도록 제시카는 권한다. 메시아이면 죽지않고 깨어나서 큰 깨달음(각성)을 얻는다. 마치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연상시킨다. 인간이 AI 시대를 맞아 신의 전지전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시대인데 어리석은 인간에게 너무나 과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아무튼, 둔의 대서사시에서 종교, 미래, 정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종찬 J&B 푸드 컨설팅 대표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mailto: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stein'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mailto: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mailto:lovespineclinic@gmail.com)





#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mailto:info@vaohc.com)

# 북, 경의·동해선 이어 DMZ 도로에도 '지뢰' ... 남북길 다 막아

(화살머리고지)

### GP 복원 이어 연결도로까지 차단 지난달엔 가로등 등 시설물 철거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산물로 비무장지대(DMZ) 내에 만든 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는데, 아예 못 쓰게 만든 것이다.

북한의 이번 지뢰 매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과 '철저한 관계 단절'을 지시한 것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안팎에선 이 도로의 상징성을 들어 "북한의 대남 관계 단절 의지가 되풀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북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벌였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장비를 이동하기



2018년 11월 중순 공동 유해 발굴용 남북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전유광 5사단장(오른쪽)과 북한 작업 책임자가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위해 조성한 비포장도로다. 군 관계자는 "당시 우리 군 관측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이 육안으로 식별됐다"고 말했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서 북한 당국의 지뢰 매설 작업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DMZ 내 10개 감시초소(GP)를 복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에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지난해 말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남북은 군사합의 당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0월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남측에선 일반전초(GOP) 통문 비마교 앞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 폭 12m, 길이 1.7km의 도로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DMZ 지역 내 도로 연결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2003년과 2004년 각각 민간이 공

사한 경의선·동해선과 달리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 장병이 직접 도로 건설에 투입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합의 내용을 어기고 공동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화살머리고지 남북 구역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되다가 2021년 6월 작업이 종료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일련의 조치로 더 이상 남북 교류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가 현실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 '응급실 러시' ... 진료 못받을까 불안감에 환자 몰린다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 '응급 이송' '응급 출동' '하트 세이버(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등과 같은 문구가 적힌 사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수시로 도착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이송업체 직원은 "음식을 못 삼킨다는 암 환자의 보호자가 아산병원으로 가기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직원은 "암 수술 뒤 배액관이 빠진 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지켜본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1시간 동안 사설 구급차 5대가 드나들

었다. 12분에 1대꼴이다. 사설 구급차는 119구급대와 달리 병원·지역 간 이송이 가능해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전공의 사직으로) 외래가 크게 줄었는데 교수님들이 사직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진료를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면서, 진료 공백을 불안해하는 일부 환자들이 응급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응급실 수용이 일단 된다면 교수와 같은 전



28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의료계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5월 3일) 등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주 1회 휴진 등을 통해 진료·수술 일정을 차차 줄이기로 했다.

서울 '빅5'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최근 '불안하다'며 응급실로 오는 환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설 구급차 업체의 실장 A씨는 "오새는 1시간 이상 기다리면 들어갈 수는 있다"라며 "나중에 자리를 빼더라도 '빅5' 병원 응급실을 밀고 들어가려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어려워질 테니 응급실로 가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암 관련 환자 카페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폐암이 의심된다고 바로 응급실로 가라 했다" "종양 수치가 높다고 대학병원에 전화했다" 등 응급실을 통해 외래 진료를 보라 했다"와 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 한 전문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B씨는 "대학병원의 진료가 당장 어려운데 그사이 사고가 터지면 안 된다" "응급실로 바로 가라"고 환자에게 귀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의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사는 "사태가 길어지면서 응급실을 찾으려는 환자들의 예전 습관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며 "응급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부가 설명하지만,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 서울 무주택가구, 출산하면 월 30만원 2년간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밝혔다. 높은 주거비 부담 탓에 경가·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막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가·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317명이다. 이 중

61.3%(19만9527명)가 가족·주거문제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주거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여

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사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제재 비웃듯 ... 토요 SUV 6대 '김정은 호위'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아우루스 차량(가운데)이 최신 토요타 랜드크루저로 보이는 6대의 경호차량 호위를 받으며 김일성대학으로 향하고 있다. 랜드크루저는 토요타의 SUV 차량으로 대당 최소가격이 8만 달러(약 1억1000만원)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

# 아는 주먹이 더 무섭다, 범죄도시4 벌써 400만

### 개봉 닷새만에 ~ 3연속 천만 노려 마동석 '마석도가 고뇌하면 이상해'

영화 '범죄도시 4'(감독 허명행)가 개봉(24일) 닷새 만인 28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 3편의 쌍천만에 이어 한국시리즈 영화 사상 세 번째 천만 흥행설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개봉 전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손익분기점(350만 관객) 도달이다. 그다음은 하늘의 뜻"이라던 마동석의 말이 무색할 만큼 새로운 흥행 기록 행진이 시작됐다. 프로듀서·감독·대기업이 중심이 된 기존 블록버스터 흥행과 달리 '범죄도시' 시리즈는 배우 마동석(53)이 전체 시리즈 기획·제작·각색·주연을 맡았다.

4편은 마석도 형사(마동석)의 핵주먹 범죄 소탕. 전편보다 비중이 커진 조 선족 전직 조폭 장이수(박지환) 캐릭터가 통쾌한 웃음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메가박스·CGV 등 멀티플렉스 예매 앱에선 "마동석 손바닥 액션은 최고" "웃음이 보장되는 마석도·장이수 조합" "3편보다 좋다" 등 호응과 함께 "아는 맛이 무섭긴 한데, 맨날 먹으니 물린다"는 반응도 있다. 빌런(악당)이 약해지고, 수사 패턴 등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마동석은 "야말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분은 그러셔도 된다. 전제적으로 영화가 재밌으면 재밌게 봐주실 거고, 스코어는 걸맞게 따라오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28일 관람객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뉴스]

'범죄도시 4'는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조폭 출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국인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한 실화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후엔 국내에서 각광받던 젊은 기업가도 연루돼 있었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 오상호 작가가 마동석이 10년 전부터 기획해 둔 원안들 중 이 사건을 골랐다. "아날로그 형사 마석도의 디지털 수사"란 반전 재미를 꾀했다.



박지환 마동석

마동석은 "3편이 정교한 복싱 기술을 보여드렸다면 4편은 1, 2편에 썼던 슬러거 스타일을 섞었다. 슬러거는 멧집과 펀치력으로 하는 기술이다"며 "진짜 복싱 대결을 보여주고 싶어 전직 복싱 국가대표 출신 배우 김지훈을 백창기 오른팔로 섭외했다"고 했다. 이어 "더 정교한 서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범죄도시" 장르에선 힘들다. 마동석 액션 영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합의점이 생겼다"고 설명하며 "투자사, 다른 제작진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독불장군처럼 갑자기 마석도를 고뇌하는 역할로 만들 순 없다"는 말로 이해를 구했다. 현재 5~8편 시나리오도 동시작업 중이라는 마동석은 "진화하지 않으면 애초 시리즈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 “훈아답게 살다가 훈아답게 갈거다~” ‘사내’ 가사 바꿔부르며 고별인사

###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투어 시작

“내가 그만두는 게 서운합니까? (관객들이 큰 소리로 ‘네’ 하고 답하자)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예’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박수칠 때 떠나는 게 쉬운 것 같았어요. 제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노래하며 살아왔는데 사원섭섭한 게 아니라 제 훈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진짜로 혼자 힘들었습니다.”



나훈아의 은퇴식이 시작됐다. 데뷔 57년 차인 나훈아는 지난 27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투어 첫 공연에서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예아라-에스케이]

‘가황’ 나훈아(77)가 1966년 데뷔 이후 57년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무대에서 은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2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마지막 콘서트 투어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의 포문을 연 그는 이날 무대에서 “피아노 앞에 절대 앉지 않을 것이

고 기타도 안 만지고 책은 봐도 글은 절대 안 쓸 것이다. 노래 안 하고, 안 해본

것 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무대에서는 것뿐 아니라 곡도 쓰지 않겠다는 의미의 ‘완전한’ 은퇴를 선언한 셈이다. 객석 곳곳에선 “안 돼요!”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송도 공연은 28일까지 양일간 3회 차로 펼쳐지며, 회당 5000여 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날 오후 3시 첫 공연을 한 나훈아는 저녁 7시30분 이어진 공연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약 2시간40분 동안 22곡을 부르면서 한순간도 가창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노래를 쉽게 하는 법을 알지만 대중대중 쉽게 하지 않고 한 소절 한 소절 또박또박 부르겠다. 마지막 공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10년은 더 할 거라 생각하며 하겠다”는 진심이 객석에 고스란히 전달된 무대였다. ‘18세 순이’를 부

를 댄 망사 상의에 치마를 두른 파격 패션을 선보였고, ‘청춘을 돌려다오’를 노래할 땐 청바지를 입는 등 무대 의상도 여러 번 갈아입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중 하나로 1997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던 공연을 꼽으며 당시 불렀던 ‘인생은 미완성’을 열창했다.

나훈아는 자신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은퇴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등에 떠도는 건강악화설을 언급한 뒤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우며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25가지 중 하나도 없다. 건강해서 의사 선생님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 도중 ‘속 터지는’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선 “내가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는데 저는 아직도 노래를 하고 있다”면서 “(TV에서) 유일하게 보는 게 뉴스였는데 이젠 뉴스도 안 본다.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 나서”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하니 그만두는 거다. 갈 때가 돼서 그만두면 내가 서운하다. 때밀러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강조한 그는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으로 2018년 발표곡 ‘사내’를 골랐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를 ‘훈아답게 살다가 훈아답게 갈 거다’로 바꿔 부른 나훈아는 마이크를 드론에 달아 날려보내며 객석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황지영 기자

## 중앙지검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며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민수(33·변호사시험 9회·사진) 검사 사무실에 이런 진정서가 접수된 건 1일 중순이었다. 그는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언론사 회장이 신분 위조 사기꾼이라니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일단 권 회장과 비슷한 연배의 중국동포 A씨가 저지른 사기 사건 3개를 찾아냈다. 대면과 전화로 사기 피해자

등 16명을 접촉했다. ‘김민수’라는 이름 탓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통화를 거절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가 보이스피싱의 대명사인데 불췌 전화해 사건 이야기를 하니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A씨를 만난 사람들에게 ‘권 회장과 A씨가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김 검사는 지난 9일 권 회장을 중국 동포로 신분을 위장해 4억원의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입관 이후 김 검사가 해결한 스무 번째 사건이었다.

로스쿨 재학 시절 ‘좌고우면할 것 없이 정의만 좇으면 된다. 검사가 1시간 더 일하면 억울한 사람이 1명 더 줄어 든다’는 교수님의 말이 그를 공직으로 이끌었다. 검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도 마쳤다. 김 검사는 앞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되고 싶다”며 “맘에 들지는 않더라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매순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수민 기자

## 4월 31도 ‘철 모르는 더위’...오늘은 열기 식힐 비

(강원도 정선)

전국에 때 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다.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다.

서울은 전날보다 낮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서 최고 28.9도를 기록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한낮 기온이 31.2도까지 치솟으면서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보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 기준으로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2.2도를 기록했다. 한여름 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는

건 최근 한반도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지면을 점점 달궀기 때문이다. 29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낮기온이 29일 25도, 30일 22도까지 내려가겠고, 나머지 지역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일부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는 30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천원필 기자



# GTAX Consulting Group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타이슨스 코너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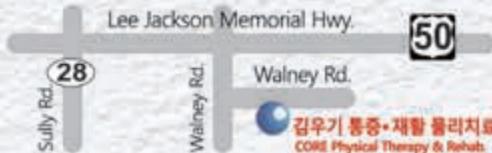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옥수수 대신 반도체 심자... 인구 1.6만명 농촌, 일자리 2만개

(텍사스주 테일러시)

###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업고 부활 건물 허가 6배 늘고 세수도 폭증 대학은 '10일 교육후 취업' 준비중 "삼성유치 위해 NO라는 말 안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삼성전자는 이곳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AFP=연합뉴스]

“삼성이 낸 세금은 이 지역 어린이 교육에 쓰일 거예요. 교육과 일자리, 이들은 삼성이 테일러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이 건설 중인 가운데,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스 카운티의 빌 그레벨 판사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레벨 판사는 카운티 최고위 선출직으로 2021년 삼성전자가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당시 공장 유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도 처우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아졌다”며 “농업 기반 공동체였던 테일러시는 이제 미국 최고의 기술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는 인구 1만6154명의 소도시

다. 한국에선 경상북도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주민 상당수는 면화·옥수수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며, 1인당 소득(3만2719달러)은 텍사스주 평균 6만2586달러의 절반에 그친다. 미국 남부의 시골 마을은 삼성전자 공장 부지로 선정된 이후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권이 살아나고 상업용 건물이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88건이던 건물 허가증이 지난해 1179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세수도 폭증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5%씩 증가하던 판매세는 지난해 226%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장 부지 10분 거리의 후토시로도 변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투자 규모를 기존 발표(170억 달러)보다 많은 400억 달러(55조1600억원) 이상으로 늘리자, 지역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브랜드 라이벌 테일러시 시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과격적인 감세 혜택에도, (투자금이 늘면서) 추가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의 투자로 이 지역엔 최소 2만 1500개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공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그레벨 판사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텍사스대와 협력해 ‘10일 훈련 프로그램’부터 공학 석사 과정까지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열흘 코스는 인텔과 TSMC가 있는 애리조나주의 지역 전문대에서 먼저 했는데, 반도체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도 교육 후 바로 취

업할 수 있게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테일러시를 택한 이유로 라이벌 시장은 4가지를 꼽았다. 시장 재임 8년째인 그는 “개발하기 쉬운 넓은 토지, 충분한 수자원, 역시 충분한 전기 인프라, 지방정부의 공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의 영향일 것”이라며 “삼성의 기존 오스틴 공장과 인접해 가용 인력이 많다는 점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유치를 위해 발전소 전력 확보에 힘썼던 그레벨 판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삼성에 ‘안 된다’(NO)는 말은 절대 안 하기로 했다”며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테일러 투자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은 2022년 텍사스주의 세금 감면 제도인 ‘챌터313 인센티브’도 신청했다. 당시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은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약 264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일러에 최대 9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지도 이미 확보했다. 라이



벌 시장은 “삼성과 테일러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 삼성·SK, 메모리·패키징 특화 한국에 생산역량 집중 나서

### ▶ 1번 'K반도체'에서 이어집니다

이로써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부터 파운드리·첨단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완성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기업(TSMC·인텔·삼성전자·엔비디아·퀄컴·브로드컴·SK하이닉스·AMD) 모두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주요 제조 거점을 미국에 두고 있다. 이미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장악한 팹리스(반도체 설

계 전문 회사) 생태계를 포함하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A부터 Z까지 모두 쥐고 있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제조 기지를 확보한 미국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주격자’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中芯國際·

중신궈지)는 올해 5나노급 칩 양산에 돌입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년이라고 진단한다. 첨단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거점을 국내에 집중시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형준(서울대 명예교수) 차세대지능반도체사업단장은 “미국에 마이크로이 있어 미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까지 미국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은 게 그나마 우리에게 기회”라며 “메모리와 최첨단 공정만큼은 반드시 국내에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기

술 지각변동이 이뤄지는 앞으로의 4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패키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 역량을 국내에 집중시키는 전략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충북 청주 낸드 생산기지인 M15 바로 옆에 신규 D램 공장 M15X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역시 평택캠퍼스에 짓고 있는 P4(4공장)를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라인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

### 반도체 기업 미국 양산 스케줄

기업명	양산시점	공정	위치
TSMC	2027년	2나노	애리조나 피닉스 2공장
삼성전자	2026년	2나노	텍사스 테일러 공장
인텔	2025~2027년	18A~14A (1나노급)	오리건 공장
SK하이닉스	2028년	첨단 패키징	인디애나 공장

### 반도체 기업들 보조금

기업명	직접보조금	저금리대출	투자액
인텔	85억	110억	1000억
TSMC	66억	50억	650억
삼성전자	60억	없음	400억
마이크론	61억 추정	미정	1150억
SK하이닉스	미정	미정	38억
	5~6억 추정	미정	7000만

## 박찬대·민형배... 22대 국회 야당 '검수완박 지도부'가 이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 온 당선인을 핵심 당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 최고위원이자 검찰독재정적탄압 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

찰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해 온 그는 원내대표 출마의 변에서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운 기개로 중단 없는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8일 수원지검 임 검사의 경관 폭행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막무 가내 행태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그들의 권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주요 당직에도 검찰에 맞설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이던 민형배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이른바 ‘폼수 탈당’을 감행한 뒤 법사위에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져 법안 처리에 한몫했다.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은 신임 정책위원장에 발탁됐다.

이 밖에 대책위 소속인 김운덕(사무총장)·강득구(수석사무부총장)·박성준(수석대변인)·한민수(대변인) 당선인들도 핵심 당직을 차지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이번엔 배지를 단 검찰 출신 박군택 법률위원장은 1호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역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의장 후보군이 노골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24일 “유보된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 의장은 품을 재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경쟁자들도 “검찰 독재에 맞서 당을 지켜냈다”(조정식)고 주장하고 있다.

강보현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와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와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중국 “HBM, 2년내 양산”... AI 핵심부품까지 자립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

**중국, HBM까지 손 뻗었다**

중국 정부 지원 컨소시엄 - 화웨이-푸젠진화집적회공사(JHICC) 등 포함  
-2026년 HBM2(2세대) 생산 목표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16년 HBM2 개발 및 생산  
2024년 HBM3E(5세대) 개발 및 생산

**5세대 HBM3E, 메모리 3사 대격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24GB 8단 적층 EUV 적용 5세대 D램(1b) 공정	36GB 12단 적층 EUV 적용 4세대 D램(1a) 공정	24GB 8단 적층 EUV 미적용(도입 예정) 5세대 D램(1b) 공정

SK하이닉스 HBM3E D램    삼성전자 HBM3E D램    자료: 업계

## 중국, 반도체 자금자족 총력전 화웨이 등 정부지원 받아 개발나서 성공 땀 세계시장 수요도 일부 흡수

미국 칩스법이 발효 2년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2026년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AI 칩과 HBM 조합으로 구성된 반도체 패키지를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공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AI 칩과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자급에 성공하게 된다. 중국이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기술자립’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주도하는 반도체 컨소시엄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년 내에 HBM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는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푸젠진화집적회공사(JHICC)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자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JHIC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화웨이 HBM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들의 현재 목표는 2세대 제품인 HBM2 개발·생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HBM2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표준화를 주도하고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최근 양사는 5세대 HBM3E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생산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 간 HBM 기술 격차는 현재 약 10년 정도 벌어져 있다.

다만 구형 HBM도 데이터센터 등 AI 서버에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HBM 시장에서 3세대 HBM2E 이하 점유율은 30%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 모두 A급 제품을 만들 실력은 없지만 B급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 서로 이어 붙여 쓰다 보면 5년 내에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물론 AI 소프트웨어 플랫폼·클라우드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화웨이가 설계하고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SMIC가 제조한 AI 반도체 ‘어센드910B’는 이미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며 중국 내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중심의 HBM 컨소시엄은 중국이 자국 D램으로 만든 HBM을 화웨이의 AI 칩과 연결해 미국·대만·한국 없이도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시도로 보인다. 화웨이 컨소시엄 외에도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와 최대 낸드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역시 각각 HBM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의 HBM 자립이 성공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산 반도체의 36.6%를 수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에서 지난해 중국의 비중은 미국·유럽·일본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현재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곳뿐으로 한국은 전체 HBM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이희권 기자

## 업계 “용인 클러스터 위한 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 투자엔 세금 돌려주는 ‘K칩스법’ 등 반도체기업 지원 법안들 국회 계류

반도체 업계에선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고 본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생산 기반과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의 무게중심을 한국이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가 깊어지고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가 다음 달 임시 국회 소집을 노심조사하며 기다리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종료되는 제21대 국회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

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사이 경쟁업체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날개 삼아 도약하면 한국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 등을 짓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말 일부 예정인 K칩스법(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법안으로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국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은 전체 투자금의 40~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데 비해 한국의 최대 25%(대·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첨단산업에는 직접 보조금 또는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주는 ‘직접 현금 세액공제(Direct Pay)’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현주 기자

## 여당 오늘 비대위장 지명 가능성



사진은 28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모습. [뉴시스]

집권여당의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사령탑 경쟁이 시들해졌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4선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선 단독 출마 가능성이 큰 친윤 핵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추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지했

다. 당에선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거야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온 김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꼽는 이가 많았다. 그의 비윤(非尹) 성향도 당내 기대를 높인 요인 중 하나였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김 의원 입장에서선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로 ‘이철규 대세론’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이미지

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도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22대 당선인 상당수와 직간접적 연인을 맺은 것이 강점이다. 반면에 당선 시 ‘도로 친윤당’이란 이미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친윤 인사는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조정훈)라거나 “원내대표가 반윤이 된다면 그

것도 코미디 아니냐”(유상범)며 엄호 중이다.

이 와중에 불거진 이른바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은 차기 원내대표로서의 이 의원 입지를 굳힌 반면, 다른 경쟁자들을 주저앉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 연대설은 총선 이후 나경원 당선인과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비윤 당 대표, 친윤 원내대표’ 식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는 정지권 풍문이다. 당사자들은 부인한다. 김기정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로써’ ‘~로서’ 구분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자주 쓰면서도 헷갈리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로써’ ‘~로서’라고 한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다.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 등과 같이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가 이런 예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 “대화로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등과 같이 수단이나 도구, “콩으로써 메주를 쑤다” 등처럼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는 ‘~로써’가 사용된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 보이나 결과적으로 ‘~로서’는 인격체에, ‘~로써’는 사물이나 도구에 붙는 말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로써’는 또 대부분 ‘~을 가지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친일로 U턴 하려는 북한 정권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2010년대 이후 패권 약화가 가시화되고는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이고 이른바 ‘소프트 파워’에서도 비교 불가한 최강국이다. 패권국이 지금 국제체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묻고 그 답을 찾는 것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극의 기본이다.

얼마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접촉을 끊는 듯한 레버리지 성 메시지를 날렸지만 어디까지나 외교적 제스처였다. 북한에 북-일 관계 개선은 경제발전을 위한 “그랜드 은행”을 얻는 셈이고, 일본은 동북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니 그야말로 윈-윈 하는 외교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며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동안 꾸준히 김정은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피력해온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불태웠다.

기시다 총리는 방미를 앞두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 회견에서는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주었다. 기시다 총리 이전 아베 정부에서도 납치 문제를 일본 외교의 최고로 중요한 과제로 천명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

과 관계 정상화도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는 전원 생존해 있고 이들의 전원송환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입장이고 이 원칙은 기시다 정부에 들어와서도 추후의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 접근에 비해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 평양 정권은 납치 문제는 오래 전 해결된 문제로서 이미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5명의 생존자는 모두 일본으로 귀국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DNA 검사를 통해 메구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견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최설희 북한 외무상도 별도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일본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관련해 해결해 줄 것도 없을뿐더러 노력할 의무도 없고 또한 그러한 의사도 전혀 없다”고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식이려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너무 넓고 깊은 강을 건너야만 하는 외교의 만리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 문제를 대하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는 다소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의 목적은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납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 ‘현안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외교적 접근의 유연성을 피력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해 북-일 양자 차원을 넘어서는 구상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북한과 대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 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신냉전 시대를 갈망해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대화 통로를 마련 한다면 동북아에서 외교적 위상이 커질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의 일본 접근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는 속셈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북-일 접근에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기대해 본다.

열린광장

뇌 건강 지키는 영어공부

‘요즘 생활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 같다. 아마 은퇴하는 1세대들이 늘고, 번역이나 통역 앱이 많이 등장한 영향인 것 같다. 그런데 번역 앱 사용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통역 앱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바라보며의사를 전달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생활영어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끔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면 방법을 묻는 분들의 전화를 받는다. 이런 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설명해 주고 교재도 소개해 준다. 어떤 교재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만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말하는 것을 연습하려면 교재 선택이 중요하다. 다음은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이다.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하는데, 계속 공부하려는 노력은 본인의 몫이다.

최근 은퇴 후 헬로를 배우기 시작한 경험담을 소재로 한 수필을 읽었다. 연주회에 갔다 헬리스트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여러 번 포기를 결심했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이 수필가는 대학교수기도 한 한 유명 헬리스트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 헬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본인도 같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헬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는 90세가 넘어서도 쉬지 않고 연습해 유명한 연주곡을 많이 남겼다. 이 수필가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어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악기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이런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의 이인아 교수가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교

수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해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이 책에서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뇌의 생명도 끝난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뇌가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무의식적인 기억 상태로 옮겨가게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지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것을 권한다. 반복 연습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뇌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악기나 스포츠 연습도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의 작용을 활성화해 준다.

영어공부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미국문화를 배우고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최성규 베스트영어훈련원장

맞춤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 Q 시민권 신청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실제적으로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

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 외 타국에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소수분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보통 다시 5년을 기다려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때 필요한 입국서류입니다.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적은 경우, 입국하실 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민권 신청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다시 한국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미국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두실점은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실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분 또한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대표

## Q 올가을학기 명문대 입시 결과 엿보기

▶문= 2024 가을학기 주요 대학 신입생 입시 결과 발표가 지난주 모두 끝났다. 이번 입시에서 명문대 입학 경쟁은 얼마나 치열했나?

▶답= 올가을학기 입시에서 몇몇 명문대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학생 간 입학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다.

예일대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인 3.7%를 기록,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을 놀라게 했다. 모두 5만 7465명이 지원해 2146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원자 중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은 773명으로 나타

났다.

하버드대는 총 5만 4008명이 지원에 3.59%에 해당하는 1937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정시 지원(RD)에서는 1245명, 조기전형에서는 692명이 각각 합격했다. 올가을학기 하버드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5.14% 감소했다.

컬럼비아 대는 정시 지원(RD)으로 총 6만 248명이 지원했고, 그중 3.8%인 2319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트머스 칼리지는 총 3만 1657명이 지원해 5.3%에 해당하는 1685명이 합격했다. 브라운대는 RD로 총 1623명, 얼리 디시전(ED)으로 898명이 각각 합격했다. 올가

을학기 총 합격자 수는 2521명, 전체 합격률은 5.2%를 기록했다. 이는 브라운대 역사상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이다.

노스웨스턴대는 총 5만 명이 넘게 지원해 7.5%의 합격률을 보였다. 라이스대는 총 3만 2459명이 원서를 넣어 7.5%에 해당하는 2439명이 합격했다. 듀크대는 RD로 총 4만 7951명이 지원해 1984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RD 합격률은 4.1%, 전체 합격률은 5.1%로 둘 다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ED로는 6240명이 지원해 806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ED 합격률인 12.9%도 사상 최저치였다.

밴더빌트대는 RD로 총 4만 1336명이 지원해 3.7%인 1512명이 합격했다. 예모리대는 총 3만 4914명이 지원해 14.5%인 5058명이 합격했다.

스완스모어 칼리지는 총 1만 3065명이 원서를 제출해 7%인 978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앰허스트 칼리지는 총 1만 3700명이 지원해 9%에 해당하는 1233명이 합격했다.

이제 입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각 학교의 장단점, 재정정보 패키지 등을 비교 분석하며 어디로 진학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 Q 레몬법 Q&A

▶문= 보증이 만료된 자동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니까?

▶답= 네, 보증이 만료되기 오래 전에 대리점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한 레몬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문= 일부 자동차에는 자동 보증이 제공되니까?

▶답= 네, 예를 들어, Honda 자동차에는 에어컨에 대한 자동 10년 연장 보증이 있으므로 대리점에 한 번만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리점에 한 번만 가도 레몬법 보

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문제로 인해 대리점을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면 내 기록과 Carfax에 기록되나요?

▶답= 아니요, 레몬법에 따른 현금 결제

는 기밀이며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정산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해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레몬법 청구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답= 일부 레몬 관련 클레임은 단 한 달 안에 해결되지만 대부분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사소한 문제에도 적용되니까?

▶답= 레몬법 주장은 소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방 카메라, 페인트 벗겨짐,

조정되지 않은 시트, 브레이크 소음, 진동 등에 적용되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내 차가 수리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어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레몬법은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번거로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레몬법 청구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니까?

▶답= 네, 레몬법은 차량을 구입한 미국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April 29, 2024 C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한미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ELS·키코 사태, 소수 세력이 상호주관성 조작한 결과물

(서로 공유하는 견해나 관점)

많은 사람이 금융 시장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John M. Keynes)의 미인대회를 인용한다. 하지만 원문을 읽고 미인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열리고 있는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대회와 막연히 연결시키는 사람도 제법 있다.

그러나 케인스의 미인 대회는 지금의 미인 대회와 완전히 다르다. 1930년대 영국 신문이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 ‘미인 사진 뽑기 대회’를 말하는 것이다. 경품 받기를 원하는 독자는 100명의 미인 사진을 보고 최고 미인이라 생각하는 6명에게 표를 던진다. 미인 선발 방식이 독특하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의 표가 결정한다. 참가자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미인이 차례로 뽑히고 이 6명을 가장 근접하게 맞힌 사람이 경품을 받는다.

**균중 심리, 상호주관성 따른 것**

그러면 참가자는 어떻게 해야 경품을 받을 수 있나. 여기에는 미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만약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1~6등을 결정하면 되지 구태여 투표할 필요가 없다. 경제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펀더멘털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인에게 투표해 봤자 별 볼일 없다.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아니다. 당첨하려면 다른 참가자가 누구에게 표를 많이 던질지를 추측해서 거기에 맞춰 투표하는 것이 최선이다. 철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객관성도 주관성도 아닌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파악해



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균중 심리를 따라 투자한다는 말도 상호주관성을 따른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급이 재료가 우선한다’는 격언도 객관적 지표보다 상호주관성에 따르는 돈의 움직임이 주가를 더 많이 결정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관성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케인스는 참가자들이 지금 누구를 미인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추측을 넘어 누구를 미인이라고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표를 던질지에 대한 2단계 추측, 2단계 추측에 대한 예상에 따

라 새로운 추측을 하는 다음 단계 등으로 꼬리를 물며 추측이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미인대회 언급을 마친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이자 철학자인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주관적이거나 상호주관적인 현실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 객관적 현실을 만들어내며 이를 또 변화시키는 과정을 ‘재귀성(再歸性·reflexivity)’으로 표현하고 케인스보다 구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설명한(다름 참조), 시장에는 기업의 이익이나 추가 움직임, 환율 움직임, 거시 지표나 금융 정책 발표 등의 ‘객관적 현실’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정보’는 ‘지각 기능’이라는 필터를 거쳐 각자의 ‘주관적 현실’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각 기능은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사이에는 항상 ‘오류 가능성(fallibility)’이 있다. 시장참가자는 동료와 토론하거나 언론에 생각을 흘려 대중이나 정부의 반응을 보는 방법 등에 의해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신장성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 4면 ‘금융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협박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 호황에도 투자 목표에 따른 포트폴리오 중요

## 4월의 시장환경 분석

3월에도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주요 기술 및 기본분석 지표들은 상승장세가 우세함을 말해줬다. 전달보다 상승장세 지표가 오히려 소폭 오른 72.1%를 가르켰고 하락장세 지표는 27.9%로 소폭 약화됐다. 특히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장세가 호전됐다. 연준의 경기전망과 금리 인하 스케줄이 이전 회의 내용과 달라진 것 없이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지표도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 여전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향후 1~2개월 시장의 향배는 곧 시작될 1분기 기업실적 현황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뉴욕 증시가 상승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 목적을 잊은 채 수익률만 쫓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F차트 등 기술분석적 지표 상승 모멘텀 보여주고 있어 기관투자자들 투자 자산에서 미국 주식 상위 랭크 긍정적 상승장에도 매도 주문 많은 상황은 눈여겨보아야 할 움직임 본인 투자성향에 맞춰야, 수익률만 쫓다가는 낭패볼 수도**

### ▶주요 '상승지표'와 '하락지표' 들

기술분석적 지표들이 계속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P&F(Point & Figure) 차트가 이런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주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S&P500 기업들의 숫자가 지난달부터 늘고 있다. 최근 상승장에 동참하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상승장이 몇 가지 종목에 편중돼 있던 환경과 비교할 때 긍정적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유형의 순위에서도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위 랭크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기관이 상승장세 지속을 예상 또는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분기 기업실적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출은 3.6%, 순이익은 3.4%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예상을 웃돌았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경우 투자자들이 시장환경을

더 낙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상승장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여전히 하락 가능성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추세를 나타냈다. 연준도 연말 핵심 물가지수(PCE) 예상치를 2.6%로 이전보다 올려 잡았다.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하락곡선을 그려오고 있었지만 기대했던 만큼 빨리 더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 부분이 향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아직 불투명하다. 아무리 빨라도 6월이나 첫 인하조치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여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술분석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하락지표는 최근 들어 팔자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달 거래량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특정 종목이나 지수가 0.2% 이상 하락할 경우 상승장의 모멘텀이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시장의 고점과 연계돼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인플레이션

연준의 타깃 인플레이션은 잘 알려진 바대로 2%다. 그러나 조만간 2% 타깃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연준 스스로가 연말 인플레이션 타깃을 2.6%로 잡고 있고, 2% 타깃 도달 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2% 타깃을 고집해야 하는가도 논쟁거리다. 대다수 중앙은행이 수용하고 있는 2% 타깃 인플레이션은 실은 상당히 임의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계산이나 논리의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깃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 관점에서는 유의미하다. 경제주체들

에게 상호 거래 시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이자와 연준

현재 금리환경은 여전히 긴축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연준은 연말 타깃 금리를 4.5~4.75%로 보고 있다. 지난 12월 계획을 그대로 유지했다.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보수적인 인하 전망이지만 시장은 이를 환영했다. 적어도 일관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양호하다는 연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연준이 갑자기 급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면 그만큼 경기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금리 중 하나는 모기지 금리일 것이다.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궁급해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모기지 금리가 언제쯤 내려올지 궁급해할 것이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금리의 평균치는 6~8% 사이를 오가고 있

다. 가장 최근의 수치는 6.87%를 가리킨 바 있다. 3월에 발표된 주택 중간값은 38만4500달러.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5.7%가 올랐다.

20%를 다운하고 재산세와 집 보험 등을 고려하면 6.87% 모기지 금리는 월 2528달러의 페이먼트를 의미한다. 수리비나 기타 유지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3만336달러다. 현재 미국 가계소득의 중간값은 7만5000달러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이 모기지 상환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내 집 마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모기지 금리는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고용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다.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시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수요가 줄고 경기 전반의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집값과 금리 전반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주거 관련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연준은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구매를 늦춘 수요자나 '다운사이징'을 계획하고 있는 은퇴인구의 매물 등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 역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변수 중 하나다. 수요를 늘리고, 결국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2.5%대 중도금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결코 보장된 수순은 아니다.

현재까지 시장환경은 긍정적 지표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확장된 측면이 있지만 때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수익률을 쫓는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확한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투자목표를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b>식당 자리</b>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발티모아 부근</b> 창고 임대 구하시려는 분 5000~8000
<b>식당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b>창고자리 임대</b>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근
<b>식당 자리</b>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b>도장</b>	<b>그로서리</b>
<b>식당 자리</b>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b>태권도장 자리</b>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b>식당 자리</b>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b>태권도장 자리</b>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상가</b>
<b>식당 자리</b>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b>사무실</b>	<b>단독 건물</b>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b>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b>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b>에난데일 사무실</b>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b>상가 매매</b>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버블티 가게</b>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이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b>사무실 자리 임대</b>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b>발티모아 상업건물</b>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b>주 택</b>	<b>투자 컨설팅</b>	<b>주재원 렌딩 서비스</b>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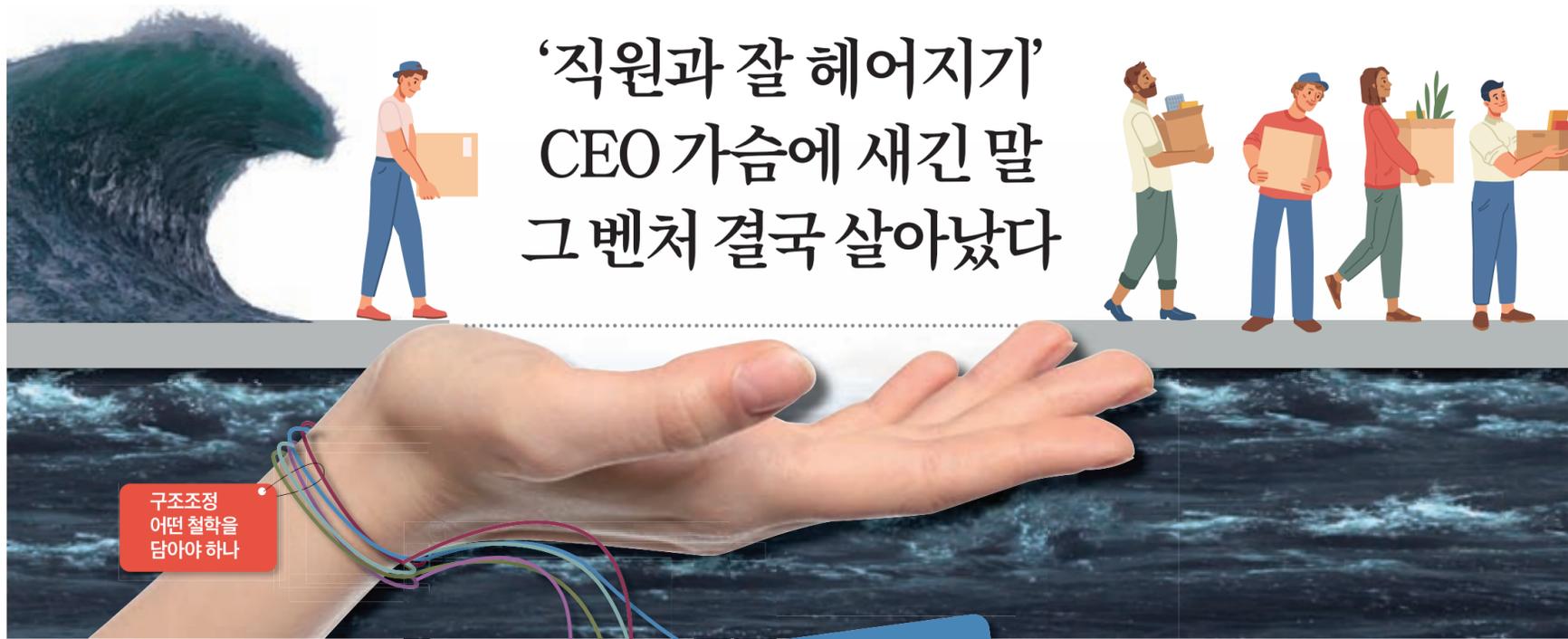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 '직원과 잘 헤어지기' CEO 가슴에 새긴 말 그 벤처 결국 살아났다



구조조정  
어떤 철학을  
담아야 하나

대한민국 스타트업 호시절은 갔다.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강남 테헤란밸리까지 차가운 감연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시장 상황과 경영 실패를 이유로 카카오펀터(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왓차(OTT)·직방(프롭테크)·정육각(푸드테크)·패스트파이브(공유오피스)·샌드박스(디지털 엔터테인먼트)·클래스101(에듀테크)·로톡(리걸테크) 등이 몸집을 줄였다. 회원 80만 명을 모은 수산물 커머스 업체 '오늘회', 식품정보 확인 플랫폼 '업선' 등은 아예 문을 닫았다.

'고난의 행군'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상황 변화다. 2022년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신중해졌다. 정육각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스타트업을 둘러싼 투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긴축 경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선 데 덮친 격, 경기 침체도 시작됐다. 클래스101 관계자는 "시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빠르게 경색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 부득이하게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왓차도 "상장 전 투자(pre IPO)를 준비 중이었으나, 거시경제 변화 영향으로 투자 유치가 지연됐다"고 했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구조조정 불씨가 됐다.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 금전적 피해가 쌓였다. 회사 관계자는

"사람이 전부인 스타트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했다"며 "사업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그 사이 기업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자구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직원들은 "어떤 설명을 들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에 회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한다. 정육각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계획을 공지하기 전에 팀원 개개인을 경영진이 직접 찾아갔다.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다. 사전 개별면담을 통해 구성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최대한 답한 이후 공식적인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정육각 관계자는 "구성원의 혼란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컸다"며 "회사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모든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듣게 되거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사내에 희망퇴직 신청 명단이 유출될 때 구성원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인재=자산'인 스타트업은 직원과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정육각 관계자는 "나가게 되는 팀원이 채용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구조조정을 최대한 늦게 알리고

- 지원**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할 수 있게 지원
- 권고**  
퇴사를 고민하는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면담이 중요
- 인재 관리**  
내부 인력 재배치 등 인재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
- 복리후생 및 혜택**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과 복리후생
- 배려**  
구조조정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배려의 마음 담아야

자했고 그들의 재취업을 위해 추천·상담 지원 등을 적극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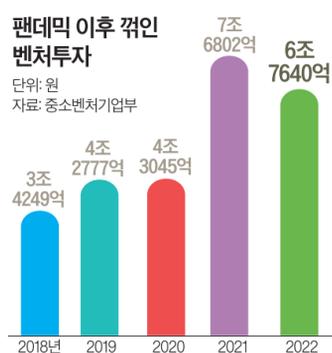
리빙딩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구성원을 절반으로 줄인 로톡은 핵심 서비스인 로톡(변호사 광고)과 빅 케이스(판결문 데이터 검색)만 남겼다. 로톡비즈(기업-로펌 연결 B2B), 모든 변호사(변호사 커리어 정보) 서비스는

중단했다. 다만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서비스는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왓차도 핵심 사업인 OTT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던 웹툰 사업은 줄이고, 음원 사업은 중단했다. 지난해 음원 스트리밍 유통을 하던 자회사 '블렌딩'도 매각했다.

'에자일(agile·민첩)'한 대응을 위해 조직 구성도 바꿨다. 클래스101은 조직을 고객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회사 관계자는 "예전엔 콘텐츠팀과 서비스 개발 조직 간 칸막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크리에이터와 수강생 대상 조직으로 바뀌어 다양한 직군이 함께 콘텐츠서비스 등을 만들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로톡도 직무별 팀 구성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했다. 개발자·기획자·마케터 등 다양한 직무 담당자가 함께 일하는 '스쿼드'(목적을 위해 다양한 직군이 협업하는 팀) 체제다.

옆자리 동료가 사라지면 업무 부담이 커진다. 적절한 조정은 필수다. 로톡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일부 서비스는 과감하게 힘을 뺐다"고 밝혔다. 클래스101도 "불필요한 업무를 빼고 운영 자동화·효율화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판단과 대응이 늦어졌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클래스101 관계자는 "시장을 냉철하게 읽고 구조조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일찍 준비했다면 구조조정 규모를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육각은 "2022년 3월 전환경유기 전문업체 초록마을 인수를 확정된 직후 금리 인상 등 미국 금융시장 변화가 감지됐는데 국내에 미칠 영향력, 전파 속도 등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대응이 늦었던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무제표에 경고등이 켜지면 그때야 다급히 인력 감축에 나서는데 이는 가장 게으른 방식"이라며 "임금피크제, 마케팅 비용 절감 등 여러 선택지를 가정해 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기업의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최후의 수단인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풍파가 지나간 뒤 중요한 건 뭘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RO) 출신으로 『구조조정-지금 우리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 최영미 작가는 "바닥에 떨어진 사기를 올리기 위해선 경영진이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김남영·김지아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2024 스톡비즈니스 마케팅 트렌드

평범한 사업가의 눈부신 마케팅 마인드

▷조심해야 하는 말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은 쉽게 남발하면 안 된다. 스톡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의 궁합이 워낙 잘 맞는 편이지만, 안 해서 손해본다는 주장은 맞는 말일 때도 조심해야 한다.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문만 열어 놓으면 만족한다는 오나가 있을까? 아니라면, 디지털 마케팅은 필수에 가깝다. 왜 조금이라도 해서 매출을 키워야 하는지와 되도록 만드는 보여줄 방법도 많다. 하지만, 결국은 사업주 스스로 깨닫고 결정할 일이다.

▷노출 없는 사업체의 위험

요즘은 지역 검색에 나타나지 않으면 새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경쟁사에 점점 빼앗긴다. 로컬 씨치에서 가장 상위 3업체에 나오지 않다고 해도, 구글 지도 광고로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다. 검색에서도 광고에서도 노출이 별로 없다면, 그래서 세일즈가 충

PART 6. 구글 지도 광고: 정말 안 하면 손해인가?

분하지 않거나 새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한다. 어쩌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긴장하고 고쳐야 할 시간일 수 있다.

▷안 해서 손해로 달려간다?

로컬 스톡비즈니스도 안 하면 큰 손해로 이끄는 행동이 있다. 대표적인 하나는 손님을 끌어오는 데 아무 비용도 안 쓰는 것이다. 세일즈와 고객 전환이 충분하지 않은데, 혹시 아무것도 안 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자.

오늘은 구글 로컬 지도에 나의 사업체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불공평한 경기장?

구글에서 “wash and fold service” 또는 “sushi restaurant” 등을 쳐보면,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지역 지도와 함께 상단에 3개의 사업체가 뜬다. ‘Local 3 Pack’으로 불리는 여기에 내 사업체가 나오면, 다른 모든 경쟁사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 80%의 고객 트래픽과 문의를 이 세 업체에서 싸움이 해가기 때문이다. 4번째 순위의 업체부터는 ‘더 보기’를

클릭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3개의 업체가 거의 독식하는 상황이다.

▷즉각적 해결 방법은?

여기에 내 사업체도 보여지는 방법은 구글 지도 최적화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시나 전문가들이 행한다. 만약, 당장 고객과 매출을 늘려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구글 지도 광고로 따라잡기?

구매를 원하는 고객의 눈앞에 즉시 나타나게 해주는 구글 지도 광고가 있다. 바로, 로컬 3팩 맨 위에 광고로 띄워주는 방법이다. 다른 구글 키워드 광고나 소셜미디어, 옐프 광고 등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 로컬 사업주에게 딱 맞다. 디지털 광고를 안

했던 분도 그동안 몰라서 못 했다며 서둘러 시작하는 분이 많다. 실제로, 알고 나면 “안 하면 손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내온 것 아닌가?”라고 무릎을 칠 수 있다.

▷상황 뒤집기?

구글 로컬 검색에서는 상위 3업체가 불공평한 노출과 고객몰이를 쓸어담듯 가져간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업체의 함성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 내 사업체가 어디쯤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무언가 해서 상황을 바꾸면 된다. 로컬 검색 최적화를 통해 내가 상위 3업체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광고를 통해 그 위에 나타날 수도 있다. 대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하지 말라.

▷스톡비즈니스 세일즈 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1면 ‘금융 시장’에서 이어집니다

주관·객관적 현실 순환하는 시장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주관적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에 따라 돈을 벌겠다는 ‘의도’를 갖고 금융 상품을 매매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시장의 객관적 현실을 변화시킨다. 소로스는 이것을 ‘조작 기능(manipulative function)’이라고 표현한다. ‘주가 조작’과 같이 적극적으로 시장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의 행동에 따라 객관적 현실이 변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말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결과를 완벽히 예상할 수도 없고 실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 기능에서도 오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없다. 소로스가 보는 금융 시장은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이 지각 기능과 조작 기능을 거쳐 재귀적으로 순환하는 곳이다.

케인스의 미인대회론도 소로스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사진에 나온 미인들의 얼굴 모양이나 안색, 스타일 등은 객관적 현실이다. 참가자는 사진을 보고 누가 미인인지에 대한 주관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경품을 받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표를 어떻게 던질지를 놓고 추측 게임을 한다. 경품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인에게 ‘몰표’를 던지자고 친구들과 협의할 수 있다. 의도를 갖고 투표한 행동

에 따라 최고 미인 6명과 경품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런 투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 매매처럼 지속해서 이뤄진다면 현실이 또 바뀐다. 이미 6명이 최고 미인으로 뽑힌 새로운 사실이 있고 이것이 100명 미인 사진에 더해져 변화된 객관적 현실이 생긴다. 이렇게 종합된 정보가 지각 기능의 필터를 거쳐 새로운 주관적 현실을 만든다. 이 주관적 현실을 놓고 “이번에는 내가 경품을 먹어야지” “이번에도 내가 경품을 따야지” 등의 의도를 갖고 다시 행동하고 최고 미인 6명과 당첨자가 다시 결정된다.

균형 분석은 과학적이지 않다

케인스와 소로스의 금융시장 분석은 여러 가지 함의를 준다. 그중 두 가지만 지적하자. 첫째, 흔히 사용하는 ‘균형 분석’은 전혀 과학적인 일이 아니다. 참가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되고 인식과 행동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균형에 머무를 수 없다. 학계나 정책 당국은 ‘시장 균형 환율’이라는 잣대를 만들어 외환 시장 개입의 적정성을 따진다.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내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분석해 시세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으며 그걸 시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참가자의 행동 때문에 가치가 계속 바뀌는데 균형 가격이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향해 시장이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20엔대에

머물다 최근 150엔을 돌파하는 상황을 균형 환율로의 복귀나 이탈로 분석하기 어렵다. 한국 원화도 1970년대 초에 달러당 300원대였는데, 지금 1400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 움직임을 균형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한국 기업의 주가가 장부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 년째 지속하는데, 그것 또한 균형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균형 환율’이나 ‘내재 가치’ 등을 내가 원하는 상호주관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다. 내가 의도하는 행동에 근접한 수치를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면 시장이 그 가격을 향해 움직인다. 학계에서도 밀어주고 다른 사람이 반박하기 힘든 모델을 동원하면 바람잡이에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 당국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려면 당국도 원하는 상호주관성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걸 받쳐주는 모델이 있으면 쓸모 있다.

둘째, 금융 시장에는 크고 작은 조작이 판을 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조작만큼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추측에 추측을 거듭해서 ‘정답’을 내놓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대신 내가 상호주관성을 만들어낸 힘을 갖고 선행매매를 한 뒤 남들이 따라오게 하면 돈 버는 일이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다.

금융 시장, 조작이 판친다고 여겨야

소로스 본인이 이런 거래의 귀재다.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에 ‘쇼트(short)’를 대거 걸어 파운드를 방어하던 영란은행을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가며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벌었다. 유로화 통합이 진행된 과정에서는 낙관론자의 상호주관성이 강했지만 1992년 유럽 경제가 불안해지자 비판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소로스는 회의론이 강했던 영국이 유럽통화제도(ERM)의 고정 환율을 고수하지 못하리라는 방향에 베팅했다. 영란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파운드를 매입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는 등 선전전을 펼쳤다. 비판론자들의 상호주관성이 급격히 강해졌고 영국은 결국 ERM을 탈퇴하고 큰 돈을 손해봤다. 그리고 그것은 소로스의 이익이 됐다.

금융 시장에 조작이 판을 치고 있다면 금융 당국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다. 그동안 금융 정책은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재하는데 관대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액을 벌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은밀한 조작 세력이 계속 돈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파생상품으로 문제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키코(KIKO) 사태 등도 크게 보면 소수 세력이 상호주관성을 조작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시장 질서를 잡는데 더 강력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 나이는 숫자? 긍정적 인식은 삶 바꾼다



나이가 든다는 착각  
베카 레버 지음  
김효정 옮김  
한빛비즈

『나이가 든다는 착각』은 이틀테면 『공산당 선언』 같은 책이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예일대 심리학 교수가 썼지만 이론서가 아니다. 저자는 노화를 전면적으로 재정의하고, 나이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의료적 차별 철폐를 촉구한다. 한국에선 2002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유행했다. 이 책은 광고 카피보다 더 급진적이다.

책에 따르면 ‘추하고 더럽다’ 등 부정적 연령인식을 깨고, ‘지혜롭고 너그럽다’ 등 긍정적 연령인식을 갖게 되면 노인의 삶과 생활은 혁명적으로 달라진다. 노인 건강증? 천만에. 특정 유형의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진다. 패턴 인식능력이 그중 하나다. 엑스레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내고, 버섯이 숨어있는 곳을 귀신처럼 찾아내는 능력은 젊은이가 따라오기 힘들다. 스니 된 나이에 친구에게 빌린 운동화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수녀 마돈나 뷰너는 1982년부터 350회 이상 철인 3종경기를 완주했다. 현재 그는 91세다.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묻자 수녀는 “지혜와 은혜” “숙성된 와인”이라 답했다. ‘긍정적 연령인식’은 이렇게 힘이 세다.

혹시 긍정적 인식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그런 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 저자는 인과관계 추적을 위해 50세 이상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20년



미국의 '2023 시니어 게임즈'에서 90세 참가자가 장대높이뛰기를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에 걸친 장기 연구를 했다. ‘긍정적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연령인식’을 가진 사람에 비해 기능적 건강이 더 좋았다. ‘노화’ 그 자체보다 ‘연령인식’이 노년의 신체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단어와 긍정적 단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 화면에 보여준 뒤 특정 동작을 하게 하는 실험도 했다. 83세 여성은 긍정적 단어에 노출된 그룹에 속해 한 달 동안 매주 실험에 참여했다. 첫 주엔 다섯 번 연속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힘들어했지만 셋째 주부터는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상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침대에서 더 가뿐하게 일어나고, 도서관 계단도 수월하게 올라가게 됐다. 컴퓨터 화면에 스쳐 간 ‘원기왕성한’ ‘튼튼한’ 등의 긍정적 단

어를 본 영향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나이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국 노팅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50대에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도 수십 년 달리기를 해온 고령의 선수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 노인은 다치거나 질병을 앓은 뒤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다. 장기 조사에서는 노인의 상태가 악화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격을 좁혀 조사한 결과 81%는 1년 이내에 완전히 회복했다.

저자의 연구는 긍정적 연령인식과 수명의 관계로 집대성된다. 긍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은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과 비교해 평균 7.5년을 더 생존했다. 연령인식이 흡연(3년)이나 혈압(4년)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연구는 연령차별에 대한 규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저자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보다 더 심각하고 뿌리 깊다. 미국에서 ‘검둥이’는 금기어가 됐지만, ‘부마’와 ‘꼰대’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차별적 언어다. 60세나 65세가 되면 강제로 퇴직하는 건 제도화된 차별이다. 저자는 65세가 된 아인슈타인을 채용하지 않을 거냐고 되묻는다. 집단 인식-동원-향의로 이어지는 ‘노인해방운동’의 전략도 제시한다. 저자는 사회 구성원의 25%가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는 50대 이상. 주름살과 백발이 추앙받는 세상, 노인해방운동의 성공도 멀지 않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곰곰이 되씹어 볼 만한 논리와 주장이다. 원제 Breaking the Age Code. 이혜준 기자

## 산업화·민주화 이후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  
조귀동 지음  
생각의힘

이 책이 언급하는 이탈리아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이되, 여러모로 비슷한 나라다. 예컨대 OECD 국가 중에 한국 다음으로 출생률이 낮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복지제도의 문제, 여전히 강한 가부장제와 남성의 낮은 가사 참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남의 얘기 같지 않다.

한데 개혁을 추진할 동력은 안 보인다. 책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90년대 중반 기준 정당 구도가 붕괴된 이후 좌우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이 득세해 왔다.

저자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키우고 이 정치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적한다. 영국·독일·프랑스를 앞섰던 1인당 GDP 나 제조업 생산성은 2000년대 초부터 추월당했다.

물론 한국이 이렇게 되리라는 논증이 핵심은 아니다. 저자는 『세습 중산층 사회』 『전라디언의 굴레』 등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적 비평서로 주목을 받아온 터. 이번 책은 첫머리부터 “한국은 어떠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정치가 헛들기 때문”이라고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이런 개혁 정체는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산업화에 모두 성공한 결과다. 저자는 대기업의 질적 고도화 등으로 수혜를 누린 ‘상위 중산층’의 부상과 ‘뒤처진 사람들’의 불평등 같은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이른바 ‘정치 질서’의 변화를 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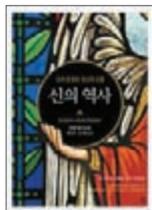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정치 질서의 특징 중 하나로 꼽는 것은 노사모 이래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 이는 일부 유권자·지지층이 과잉대표 되는 문제와도 통한다.

이 책은 노인·지방·외국인, 공동구매 성격의 공공재 공급 방식의 변화 등까지 다루며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유용한 시각과 틀을 제공한다. 저자의 주장은 결국 “정치의 복원”. 그 구체적 내용 중에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존중받는 정치”가 있다. 어쩌면 이 책을 가장 반갑게 읽을 독자도 이들이 아닐까 싶다. 이혜준 기자

### 책꽂이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폴 스트래든 지음, 이종인 옮김, 책과함께)=단테부터 보카치오, 다빈치, 마키아벨리, 미켈란젤로 등과 갈릴레이까지, 눈부신 인물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싹튼 이유를 보여준다.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코시모, 로렌초 등도 당연히 이 책의 주요 인물. 저자는 영국 출신의 르네상스 전문가다.



신의 역사(카렌 암스트롱 지음, 배국원·유지향 옮김, 교양인)=수천년에 들어갔다 환속한 이력이 있는 영국 종교학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저서. 고대부터 여러 신의 기원, 유일신 신앙의 탄생, 기독교의 신, 이슬람교의 신 등은 물론이고 신비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 계몽주의, 그리고 근현대 철학자들과 ‘신의 죽음’이나 ‘신의 미래’까지 다룬다.



금강산(김장춘·알렉산더 간제 지음, 살림)=“신바드의 모험”에 금강산 버전을 새로 추가하고 싶다. 헨리 버제스 드레이크라는 영국인은 1930년 출간된 책에 이렇게 썼다. 1889~1945년 금강산을 여행한 64명 서양인(또는 단체)의 여행기 73종을 모아 그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 담았다. 여행기들에 실린 당시의 사진들도 여럿 실려 있다.



문밖의 사람(정혁웅 지음, 미디어북스)=소설가로 등단해 두 권의 책을 냈고 전업작가가 아니라 택배 일을 하는 저자의 산문집. 번역본이 출간된 나라의 초청을 거절할 것도 택배 일을 거를 수 없어서였다. 작가로서, 생활인으로서 쉬운 세상을 넘어서는 이 저자만의 삶과 시각이 젊은 날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 같은 개인적 이야기와 함께 담겨 있다.

**☎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 베니스 무인도서 예술의 춤판, 카타르 공주·이서현도 반했다

베니스의 무인도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도, 가게 개업식에서 볼 법한 높이 5m 바람 풍선 인형도 온통 분홍이다. 신바람 이박사 같은 트로트 음악이 쿵쾅쿵쾅 울리는 가운데 현란한 차림의 무용수들이 작은 섬 여기저기를 누볐다. 치마저고리 입은 남성 무용수, 동그란 선글라스에 수영모자 쓴 여성 무용수가 비눗방울 풍을 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지난 18일 낮(현지시간) 베니스 인근 섬 산 자코모에서 열린 안은미의 '핑키 핑키 굿: 산 자코모의 내일을 향한 도약'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버려진 섬에서 열린 '핑키 핑키 굿: 산 자코모의 내일을 향한 도약'에서 무용수들이 돌을 쌓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안은미컴퍼니]

춤판은 또한 굿판이었다. 산 자코모는 과거 한센인들의 섬이었고, 나폴레옹의 군사 기지로도 활용됐다. 현대 무용가 안은미는 "이 사연 많은 땅의 역사를 되짚고, 현대 예술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벌이는 '터 굿'"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고교생·중년남성 등 모두를 춤판으로 끌어들이 '몸의 인류학자' 안은미가 이번엔 베니스의 무인도에서 영매가 됐다.

버려진 섬 전체를 조각과 설치, 공연으로 채웠다. 창고 안 흰 종이 커튼을 지나 홀에 이르면 형형색색 옷을 입은 나무 인형 10036개가 나온다. 굿에 쓰

이던 지전(紙錢), 전통 장례에서 상여에 달던 쪽두 인형을 닮았다. 한국의 장승 장인이 깎은 목각 인형에 안은미가 일일이 옷을 입혔다. 반대편 해안가 흙산 위에는 분홍색 페인트를 채운 작은 배가 놓였다. 배 안의 무용수가 관람객들이 건네는 돌을 침례 의식하듯 하나하나 분홍 페인트에 담갔다 뺀 뒤 쌓아 올렸다. 한국의 산에서 만나볼 돌탑처럼, 참가자들이 소망을 하나하나 보태 올리는 퍼포먼스다. 이날 행사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

젝트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드래곤즈'는 코로나 19가 한창일 때 아시아 5개국의 2000년생 용띠 무용수들과 화상 채팅으로 안무를 준비해 홀로그램으로 올린 무대다. 바비칸 센터의 첫 한국무용 공연이었다. 수상 버스도 달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따로 빌린 배로 초대받아야 올 수 있는 단 한 번의 예술 프로젝트였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사전공개가 한창인 이날, 넘쳐나는 현대미술 전람회를 마다하고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이 무인도 행사를 택한 관객은 600여명. 신명과 재미의 춤판에는 알 마야샤 카타르 공주, 베티나코렉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 대표, 스위스의 파워 컬레터 마야 호프만, 그리고 리움미술관 이서현 운영위원장도 있었다. 삼성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술 후원했다. 건축가 조민석 매스터디스 대표는 "원 없이 최대한 만들어진 공연을 보니 '평생 팬'으로서 더없이 뿌듯하다. 오는 6월 서펜타인 파블리온에도 그를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펜타인 파블리온은 런던의 비영리기관인 서펜타인 갤러리가 24년째 이어오는 여름 건축 프로젝트다. 조씨는 한국 건축가로는 처음 선정됐다.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20일 시상식과 함께 공식 개막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 작가 4명으로 구성된 '마타호컬렉티브'가 받았다.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아치 무어가 참여한 호주관에 돌아갔다. 전시관 벽면을 칠판으로 꾸미고 6만5000년 호주 선주민의 역사를 분필로 그려 넣었다. '외국인은 어디에 있다'라는 주제답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주민들이 주인공이 됐다. 한국관은 '구정아-오도라마 시티'라는 제목으로 공간을 텅 비우고 향기를 전시하는 역발상을 꾀했다. '향기(Odor)'와 '드라마'를 조합한 제목이다. 한반도 남쪽이라는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어디나 갈 수 있는 냄새가 미술의 소재가 됐다. 입양된 후 27년 만에 처음 내린 김포 공항에서 풍기던 설렘과 상실의 냄새, 1930년대 북한 고향의 사과꽃 향기와 햇사과 향, 할머니 방 냄새, 공중목욕탕 냄새, 밥 짓는 냄새, 지하철의 금속향, 한강의 물비린내 등이 '한반도의 냄새 지도'가 됐다. 프랑스·한국·일본에서 온 16명의 조향사와 함께 17가지 향으로 만들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이어진다. 권근영 기자

## LG팬이 쓴 '야구로맨스' ... "취미가 글감 되니 극본 한편이 똑딱"

JTBC·SLL 극본공모전 대상 한세림 '하트 에이전트' ... 2500편 중 뽑혀 돈만 좇는 미모의 '협상 마녀'

마녀로 불리며 오로지 돈만 좇는 슈퍼 에이전트와 야구팬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야구선수 출신 청년 농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극 중 주인공들은 야구뿐만 아니라 골프·테니스·레이싱, 당구 등 여러 스포츠를 접한다. 심사에 참여한 서영희 SLL EP(제작 책임자)는 "당면한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 또한 있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한세림 작가는 "10년 후엔 '백상예술대상'에 초대받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강정현 기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스포츠를 많이 봤어요. 프로야구는 LG트윈스 팬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춘물, 스포츠 로맨스에 끌린 것 같아요." "2024 JTBC X SLL 극본 공모전"에서 스포츠 로맨스 장르의 '하트 에이전트'로 대상을 차지한 한세림(36) 작가는 "취미로 본 야구 에이전트 영상을 계기로, 평소 좋아하는 로맨스 장르를 떠올렸을 뿐인데 드라마 한 편이 똑딱 써졌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만난 그는 LG트윈스 굿즈인 휴대폰 케이스를 손에 꼭 쥐고 야구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대상작인 '하트 에이전트'는 협상의

올해 극본 공모 심사작은 단막 1693편, 시리즈 828편으로 지난해보다 350편 이상 늘었다. 1~3차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총 9편의 당선작(대상 포함)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작품'이 아닌 '작가'를 뽑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당선자들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SLL 소속 작가로 활동한 뒤 본계약(3년)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한 작가와의 일문일답. -늦은 나이에 데뷔하게 됐다. "글쓰기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하다가 20대 후반부터 작가가 아카데미에 다녔다. 한세림이라는 이름은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뒤 정한 예명이다. 주변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 앞

로도 본명은 밝히지 않을 생각이다." -상금 5000만원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 "통장에 넣어두겠다. 이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신나게 쇼핑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4년 간 아무 작품도 쓰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 이번 상금은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

두고 싶다." -SLL 소속작가로 어떤 작품 쓰고 싶다. "JTBC '품위있는 그녀'(2017), '합선 여자 감남순'(2023) 등을 집필한 백미경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같이 일한 회사 중 JTBC가 가장 친절했다'고 하더라. 내가 방송국을 선택할 처지는 아니지만, JTBC X SLL 공모전에 당선돼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로맨스를 깊게 파고들어 백상예술대상에 갈 만한 작품을 쓰고 싶다." -롤모델은 누군가. "아무래도 로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은숙 작가다. 김은숙 작가가 쓴 tvN 드라마 '도깨비'처럼 판타지를 결합한 로맨스도 언젠가 써보고 싶다." -내 작품에 출연했으면 하는 배우가 있다면. "이민기 배우를 좋아한다. 드라마 '태릉선수촌'에서 보고 팬이 됐다. 국가대표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극중 선수들의 열정에 매료됐다. 스포츠는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매력 있는 장르다." 황지영 기자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역사·이념까지 걸렸다, 종전 없는 전쟁 '엘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 vs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이하 레알)가 유서 깊은 라이벌전 '엘클라시코(El Clasico)'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 레알은 지난 2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32라운드에서 주드 벨링엄의 결승골에 힘입어 FC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사)를 3-2로 꺾었다.

레알은 정규리그 7연승 행진과 함께 시즌 25승(6무1패)째를 거두며 리그 선두(승점 81)를 달렸다. 7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2위 바르사(70점)와의 격차를 11점으로 벌렸다. 아울러 통산 257번째 엘클라시코를 승리로 장식하며 역대 전적에서도 105승52무100패로 근소한 우위를 유지했다.

엘클라시코는 매년 전 세계 축구팬 6억5000만 명이 시청하는 클럽 축구 최고의 빅 매치다. 단순히 강자끼리 격돌해서가 아니다. 엘클라시코의 90분에는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정치·이데올로기가 몽땅 담겨 있다. 특히 선악 구분이 뚜렷하다. 레알은 '합센 악당', 바르사는 '핍박받는 주인공'이란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다윗과 골리앗

레알과 바르사의 이미지는 뚜렷하다. 레알은 권력과 부, 중심 등을 떠올리게 한다. 카톨릭의 순백색 유니폼, 스페인 왕가를 상징하는 보라색이 팀 컬러다. '레알(real)'이라는 명칭 자체가 '로열(royal·국왕의)'이란 뜻이다.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사라고사 등 스페인 왕가의 공인을 받은 몇몇 클럽만 구단 명칭에 '레알'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홈 경기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마드리드 금융 중심가에 있다. 서울로 치면 여의도나 테헤란로 한가운데에 홈그라운드인 경이 있다.

레알의 반대말은 바르사다. 마드리드에서 동쪽으로 600km 넘게 떨어진 카탈루냐 지방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스페인 국적이지만, 정체성을 카탈루냐에 둔다. 카탈루냐어는 스페인어(카스테야노)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보수보다 진보를 추구하는 길을 걸었다. 그런데 카탈루냐는 돈

## The JoongAng | 레드재민의 '빨간 맛 축구'



22일 열린 257번째 '엘클라시코' 도중 언쟁을 벌이는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어(왼쪽)와 바르셀로나의 질 쿨레. [AP=연합뉴스]

매년 전 세계에서 6억5000만명 시청 마드리드 왕가와 관계 깊은 '레알' 카탈루냐의 '바르사' 이미지 극과 극

피구 이적한 2000년대 적대감 절정 경기 중 돼지머리·술병 날아들기도

까지 잘 본다. '스페인의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스페인 내에서 카탈루냐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를 잘 말해준다.

### ◆누가 천사, 누가 악마인가

일반 팬의 눈에는 레알이 '빌런(악당)', 바르사가 '히어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레알에서, 리오넬 메시가 바르사에서 각각 선수 생활의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도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다. 지금도 바르사는 고된 재정 상태를 간신히 버티는데, 레알은 갑부 회장 덕분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괜히 알파다. 독재자 프랑코와의 연관성은 레알의 악당 이미지를 심화시킨다. 1970년대 슈퍼스타 요한 크루이프(네덜란드)는 독재자 프랑코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레알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바르사와 계약했다.

바르사의 정체성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팬들이 직접 운영하는 축구팀'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소시오(socio·시민 주주)와 바르사의 관계를 '축구팬의 낭만'처럼 여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레알도 시민구단이다. 지배 구조와 운영 방식이 바르사와 똑같다. 레알이 바르사보다 재정적



루이스 피구가 레알로 이적한 이후 첫 출전한 엘클라시코. 분노한 바르셀로나 팬은 돼지머리를 집어 던졌다. [사진 FC 바르셀로나 트위터]

엘클라시코 두 주인공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1902년 3월 6일	창단연도 1899년 11월 29일	
마드리드	엔고지	
9만1701명 (2021 기준)	시민 주주 수 15만317명 (2023 기준)	
주요 대회 우승 이력		
35회(최다우승)	프리메라리가	27회
14회(최다우승)	챔피언스리그	5회
20회	스페인국왕컵	31회(최다우승)
13회	스페인수퍼컵	14회(최다우승)
5회(최다우승)	UEFA수퍼컵	5회(최다우승)
5회(최다우승)	FIFA클럽 월드컵	3회
엘클라시코 역대 전적		
통산 257전 105승52무100패 레알 마드리드 우세		

으로 풍족한 이유는 선출직 회장과 임원진의 뛰어난 경영 수완 덕분이다.

### ◆엘클라시코의 결정적 장면들

1994년 바르사의 주축이던 미카엘 라우드럽(덴마크)이 라이벌 레알로 이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97년에는 정반대로 레알에서 뛰던 루이스 엔리케(현 파리생제르맹 감독)가 바르사로 가버렸다.

2000년대 들어 두 팀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당시 바르사는 기세등등했다. 창단 100주년이던 1998~99시즌에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핸드볼 등 운영하는 모든 종목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고 영웅은 미드필더 루이스 피구(포르투갈)였다. 그런데 피구는 역대 최고 몸값을 받고 바르사를 떠나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손흥민이 갑자기 일본인으로 귀화해 '아시아 올해의 선수' 상을 받은 격이랄까.

2년 후, 바르사의 홈 구장 캄프 누에서 2002~03시즌 첫 엘클라시코가 열렸다. 레알이 코너킥 찬스를 얻은 직후 피구가 코너 플래그 쪽으로 걸어가자 핸드폰, 동전, 기왓장, 자전거 체인, 술이 담긴 위스키병 등이 경기장 안으로 날아들었다. 가장 충격적인 투척물은 스페인 전통 음식 코치니요 아사도(Cochinillo Asado·통돼지 바비큐)에 쓰일 돼지머리였다.

홍재민 축구 칼럼니스트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b>\$1,110,000</b>	<b>\$426,000</b>	<b>\$580,000</b>	<b>\$840,000</b>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식민지 아이 이상, 만인 전쟁터 경성을 '낯선 말'로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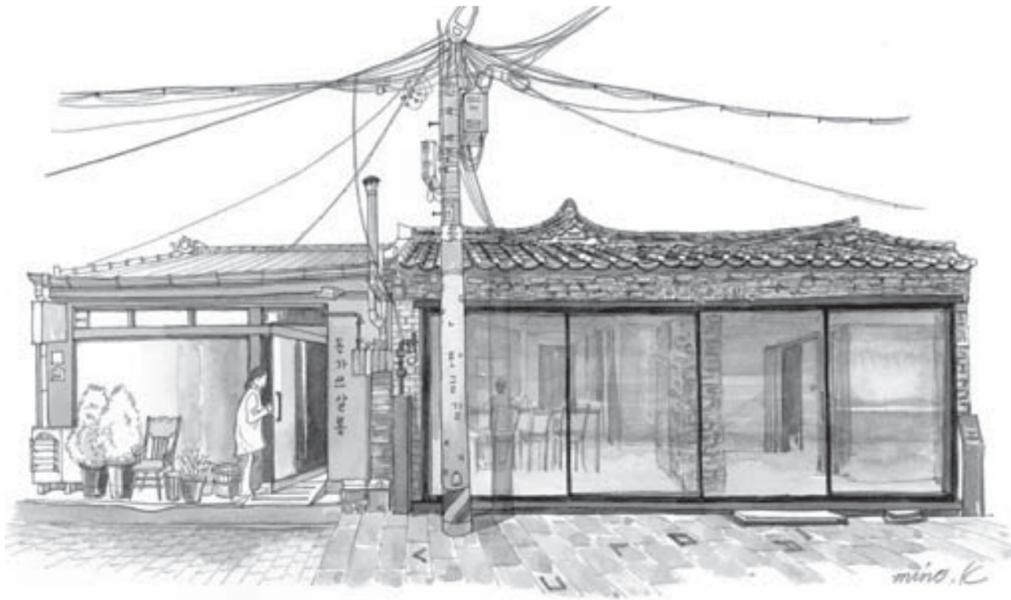
우리 문단에서 '현대시'의 문호를 활짝 열어젖혔던 이상의 시는 3음보와 4음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시의 전통적 호흡 단위를 무시하고 쓰였다. 그의 시는 한국시의 형태를 '노래'에서 '읽는 시' '보는 시'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기호나 수식, 그림 등을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형태를 취하기도 함으로써, 시의 형식을 노래에서 '문자'로, 더 나아가 '그림'으로 확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시에서 이러한 정도의 과격한 형태 전환 사례는 드물다. 이 형태적 과격성이 그를 한국시의 전위(avant garde)로 계속 남게 하는 요소다. 이상에 의해 한국시는 시의 언어가 반드시 글꼴 문자 '문(文)'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숫자와 기하학적 이미지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그가 현대의 핵심적 언어를 수학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에 앞서 최남선이나 이광수와 같은 신문물의 선전자들이 있었지만 경성고등공업전문학교(서울공대의 전신)를 졸업한 이상은 그야말로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수학과 과학, 기술시대의 언어로 훈련을 받아 세상에 불러 나온 사람이었다.

그의 시에는 삼각형과 역삼각형, 사각형을 부부나 연인의 모습으로 환치하고('신경질적으로 비만한 삼각형 선에 관한 각서7'), '1234567890'을 "질환의 구명과 시적인 정서의 기각처"(선에 관한 각서5)라고 한 표현이 있다. 그는 기호와 숫자가 일반적 문자보다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삶의 양상과 세계를 형상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수학적 기호는 전통적인 '시적인 정서' 표현의 대체물이었다.

**식민지 근대 풍경의 강력한 표상**  
문제는 이러한 '낯선 말'이 지닌 역사적 함의다. 이상의 문학과 그의 생애 자체가 한 작가적 개인의 문학적 실험을 넘어 한국의 식민지 근대 풍경에 관한 강력한 표상을 이룬다.

이상은 1910년 경성부 북부 순화방반정동(현 종로구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1910년이라면 경술국치가 있었던 해이니, 그의 육체는 식민지의 탄생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셈이다.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운영하는 '이상의 집'



시인 이상이 세 살부터 20여 년간 머물렀던 '이상의 집'(서울 종로구 통인동 154-10번지)을 김민호 작가가 그린 일러스트.

## 일제 식민지 시작된 1910년 탄생 종로구 사직·통인동서 나고 자라

이 있는 곳, 종로구 통인동 154번지가 그가 자란 백부의 집이다. 그는 누상동(현 옥인동)의 신명학교와 동광학교를 거쳐 해화동에 있던 경성고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조선의 왕이 살던 경복궁 바로 옆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학교를 다닌 그의 동선은 경희궁·창덕궁·창경궁 등 조선의 주요 궁 주변과 겹친다.

그는 20대에 친구들과 종로 어디쯤에 제비다방이라는 카페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일제의 대륙 침략기지 역할을 했던 식민지 경성, 그 중에서도 조선총독부 주변에서 나고 자랐다. 식민지 경성, 그 중에서도 종로의 아이였던 셈이다. 그의 유명한 소설 '낯개'에서 잠에 취해 있던 주인공이 탈출을 감행한 곳은 최초의 거대 자동동력기계 기지였던 경성역과 최초의 백화점이었다던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이었다. 서른 살도 살지 못했던 그의 짧은 생애 동선이 '전통적 시간과의 과격하며 폭력적인 단절'의 표징이었던 경성 사대문 안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세계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과격하게, '도시인' 체험을 강제당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현대시의

창시자였던, 그래서 세계문화사에서 현대성의 선구자로 불리는 19세기 보들레르가 세계 최초의 계획적 현대도시였던 파리의 아이였던 것과 그의 체험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르다. 19세기 파리는 '세계의 수도'였으나, 20세기 초 경성은 '제국 수도의 모조품'이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동경 미츠코시 백화점의 모조품이었으며 조지야·미나카이·하라다 등의 백화점이 경성의 일본인 거주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경성역은 도쿄역을 모델로 한 짜퉁이었다. 서구 제국주의를 동경했던 일본 사회에 불어 닥친 세계박람회와 동물원 열풍은 식민지였던 조선으로 옮겨왔고, 그 방식은 식민지 왕의 집이자 정치적 상징터였던 궁을 부수고 해체하여 노예적 굴종을 정치적으로 상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창경궁이 그렇게 창경원이 되었으며, 경복궁에서 그렇게 조선물산공진회(1915년)와 조선박람회(1929년)가 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식된 식민지 '모던'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저항 없이, 오히려 폭발적인 호응 속에 자리 잡아 갔다는 사실이다.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는 조선총독부 통치 5주년을 기념하는 식민권력의 선전 행사였다.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 시작했

던 경복궁의 근정전 앞 흥화문과 영제교가 이 때문에 헐리는 등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물이 해체되었지만, 공진회는 보란 듯이 엄청난 흥행을 이뤘다. 공진회 관람객은 116만여 명이었고 경성에서만 19만 명 가까이 관람했다. 당시 경성 인구를 감안하면 웬만한 어른은 다 가서 보는 행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 한국미술연구소])

1929년 조선박람회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창경원의 야행 놀이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구경꾼들로 매년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는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복원되기 전 1980년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여기저기 생긴 경성의 극장들, 조선 자본까지 합세하였던 백화점들 역시 만원이었다.

**'아해'가 진짜 무서워했던 대상은**  
이상의 '낯선 시'로 널리 알려진 '오감도-시제일호'는 '아해'(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은 최초의 한국 현대시다. 이 시는 도로를 질주하는 아이들의 반복된 '공포'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다. 설왕설래가 많은 난해시의 대표작이지만, 이시가 이상이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새로운 '도로', 도시 풍경 위에서 펼쳐지는 시라는 사실만은 분명

하다.  
내용 역시 의외로 명확하다. 아이들은 무섭다(무서워한다)! 무서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뚜렷하지는 않으나, 시인이 보았던 풍경은 그의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성의 도시화, 근대화 과정이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전통의 시간을 부수고 해체하여 그 위에 '질주하는 도시의 속도'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 거주했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아이들의 두려움이 이 새로운 도시의 속도 풍경에만 있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 시에서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가장 내밀한 감각선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경악'이다. 나는 아이들의 이 경악을 일제가 지은 근대 풍경의 폭력성을 넘어서, 이 위장된 모던 도시 풍경 속에 도취되고 열광하는 조선인들의 반응을 보며 느끼는 경악으로 읽는다.

이상은 수학과 근대기술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시골의 풍경에서 즉시 '권태'를 느낄 만큼 예민한 '모던 보이'였으나, 식민지 도시가 보여주는 이 망각의 풍경을 체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한편의 저항기도 쓰지 않았고 많은 시를 일본어로 썼지만, 3·1 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과 최초의 근대 한글 장편 소설을 썼던 이광수조차도 친일을 하던 시대에 단 한 편의 친일작품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과학과 도시, 성(性)과 병이라는 모티프를 현대시의 주제로 포섭한 한국 최초의 시인이었고, 현대 문학이란 이에 관한 도시적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식민지 모던 경성을 긍정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 그의 시와 소설에서 경성은 거대한 매춘굴이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만인전쟁터였고, 폐병을 앓는 병든 터전이었다.

전통적 시들이 전통 사회지배 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없이 인간의 내면과 사회 및 우주의 질서를 하나의 일관된 음악적 질서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의 품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동화될 수 없었기에 그의 언어 역시 각박하고 신경증적일 수밖에 없었다. 두려운 아이의 꿈을 체화한 시적 언어, 그것이 음악이 사라진 '낯선 말'의 이상이 지은 현대문학이었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b>Bowie</b> \$639,000 싱글홈, 방4, 차고2	 <b>UNDER CONTRACT</b> <b>Edgewater</b>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b>UNDER CONTRACT</b> <b>Rockville</b> \$280,000 콘도	 <b>COMING SOON</b> <b>Perry Hall</b> 싱글홈, 방3, 화2.5	 <b>SOLD</b> <b>Ellicott City</b> \$689,000 싱글홈, 렌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b>UNDER CONTRACT</b> <b>Cockeysville</b>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b>SOLD</b> <b>Columbia</b> 싱글홈, 방4, 화2	 <b>UNDER CONTRACT</b> <b>Ellicott City</b>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b>UNDER CONTRACT</b> <b>Rockville</b> \$520,000 싱글홈, 방4, 화2	 <b>UNDER CONTRACT</b> <b>Cooksville</b> \$449,000 싱글홈, 방4, 화2.5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COMING SOON**

 <b>Elkridge</b>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b>Hanover</b>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b>Germantown</b>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b>Glen Burnie</b>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b>COMING SOON</b> <b>Hanover</b>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b>Odenton</b>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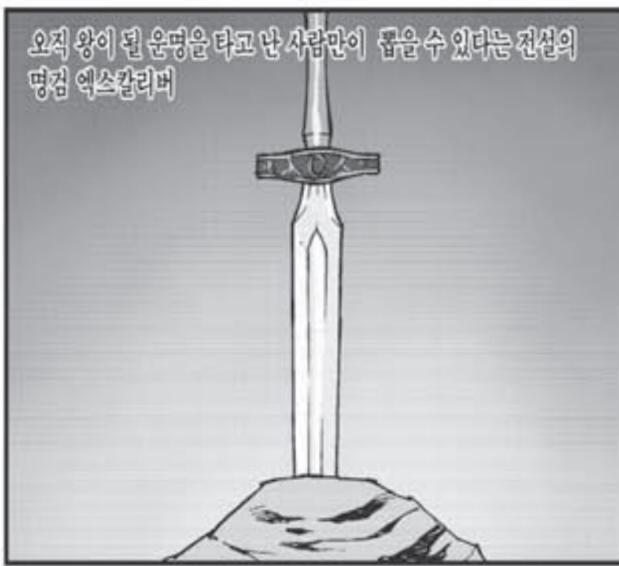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전설**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후,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티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중앙일보**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 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펫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정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839-3735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南向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볼테스,  
(1+2층 7베드, 4베드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드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랑 길에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유희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렌트, 홈디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 (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한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직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드택,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쇼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렐름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 ft.,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 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일보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크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애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토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월터· 시간: 일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 treadmill & bike machine \$100  
- 세라렘 \$100 -3 bikes \$100  
- tools \$100 -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 도자기 꽃병 (4세트) \$100  
- 교자상 2개 (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 단랍 (스페인제) 3-9 P S 7개  
- 요벡스 6-9 P 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Mr. Chung)

##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웃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워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토직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Luck is on (one's) side; (누가) 운이 좋다**

(Les just got home from work...)

(레스가 막 퇴근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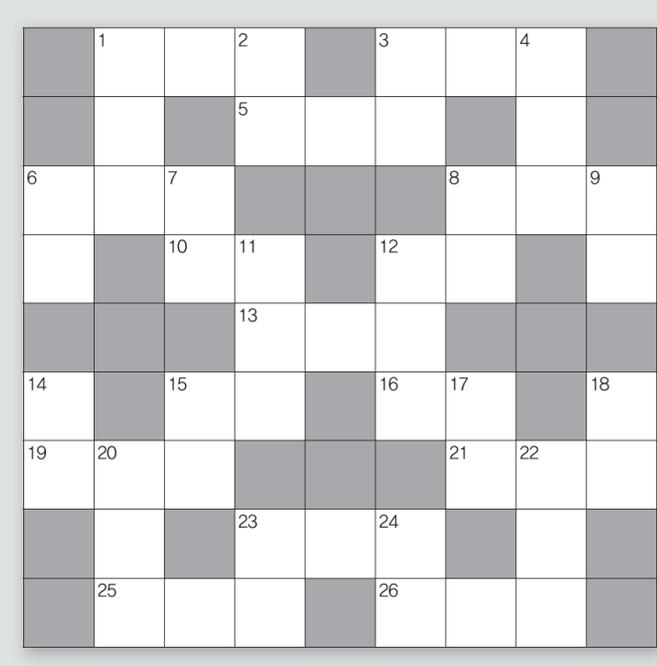
Les: Luck was on my side today.  
레스: 나 오늘 운이 좋았어.  
Beth: What are you talking about?  
베스: 무슨 말이야?  
Les: I almost had an accident and it scared the hell out of me.  
레스: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Beth: What happened?  
베스: 무슨 일인데?

Les: I nodded off driving home.  
레스: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졸았거든.  
Beth: Oh no! That's dangerous.  
베스: 아니 그럼 안되지! 위험해.  
Les: And I almost ran into the car in front of me.  
레스: 게다가 앞 차를 받을 뻔했어.  
Beth: I told you that you don't get enough sleep.  
베스: 넌 잠이 부족하다고 말했잖아.  
Les: I know I know. Now I believe you.

레스: 알아 안다고. 이제 네 말 믿어.  
Beth: You should go to bed earlier tonight.  
베스: 오늘 밤엔 일찍 좀 자.  
**기억할만한 표현**  
▶ It (or he or she) scared the hell out of me: ~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A siren went off somewhere and scared the hell out of me."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리는 바람에 기겁을 했어.)  
▶ nod off: 졸다.  
"I kept nodding off during class."  
(난 수업 시간 내내 졸았어.)  
▶ run into (someone or something): 차로 받다.  
"I nearly ran into a tree."  
(차로 나무를 받을 뻔했어.)

**날말퀴즈**



**가로열쇠**

(1)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3)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세우는 금속제의 막대기 (5)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 위는 대개 여섯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다 (6)자신들의 주장이나 홍보를 위해 큰 글자로 써서 붙이는 게시물 (8)고기튀김에 달고 새콤하게 끓인 녹말채소 소스를 끼얹은 중국요리 (10)강물 속에 모래가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수북하게 난 곳 (12)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콧물도 나오죠 (13)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15)선거에서 떨어짐 (16)벼, 보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부분 (19)돈으로 만든 이것을 깔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1)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23)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 녹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 눈 (25)뒷자락이 제비꼬리처럼 갈라져 있는 남자 예복 (26)근심을 푸는 곳. 화장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안사로 가라/선안사 ~로 가서 실컷 울어라/~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정호승)

**세로열쇠**

(1)신문 따위의 글을 즐겨 읽는 사람. 중앙일보 ~ (2)부부를 중심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말은 ~과 함께 보내지는 것은 그의 생활신조이다 (3)속이 빈 대롱에 구멍을 뚫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4)잎(엽)이 바늘같이 뾰족하며 상록수가 대부분이다 (6)한복 바지의 발목 부분을 졸라매는 끈 (7)종이나 형질의 거죽에서 부풀어 일어나는 가느다란 털 (8)국이나 찌개 따위를 담는, 주발처럼 생긴 작은 그릇 (9)동물의 고기를 먹음 (11)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12)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탐하는 사람. 한곳으로 감돌아드는 물에 비유하여 생긴 말이지요. 그는 먹는 데에는 ~지만, 일하는 데에는 배틀이다 (14)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15)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주의 (17)상중에 있는 집에서, 죽은 이에게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 (18)았을 때 밑에 끼는 작은 깔개 (20)직사각형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연 (22)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 (23)온갖 복, 애독자 여러분의 댁내에 ~이 깃들기를 (24)눈이 많이 내려서 입을 피해

**스도쿠**

5		2	8	4	7			
3	8			9	6		4	
6						2	8	7
	2	3				8		6
7	4	5			8	3		
	6		1		3			5
9				8	2			
						7		8
2	7	8	6		4		5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5	1	4	3	9	8	7	2
8	2	7	6	1	5	9	3	4
4	3	9	2	8	7	1	5	6
5	7	4	3	2	1	6	9	8
2	1	3	8	9	6	5	4	7
9	6	8	5	7	4	3	2	1
7	8	2	1	5	3	4	6	9
1	4	5	9	6	2	7	8	3
3	9	6	7	4	8	2	1	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기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대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한인최대 온라인 쇼핑몰**  
건강, 식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반려동물 용품, 테마파크 티켓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상품까지  
**HOT DEAL**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  
LA KTown 213.368.2611  
한국제품이 참 많아서 좋아요~ Hotdeal.Koreadaily.com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급한돈 융통/융자/재용자\$\$\$**  
▶ 나쁜 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회사  
▶ 다산카드 재사용 전문입니다.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방법 알려 드립니다.  
▶ 사업체 운영/매매/폐업시 바로 융자 가능합니다.  
▶ 빚 때문에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특별상담  
▶ 역이민 고려하시면 현금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율환유 젤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 샵**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전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관 도안역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침질방 효과 탄소열선 일월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환제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 트윈 \$229 |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항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펫 중형 \$385 | 대형 \$465 |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 \$79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